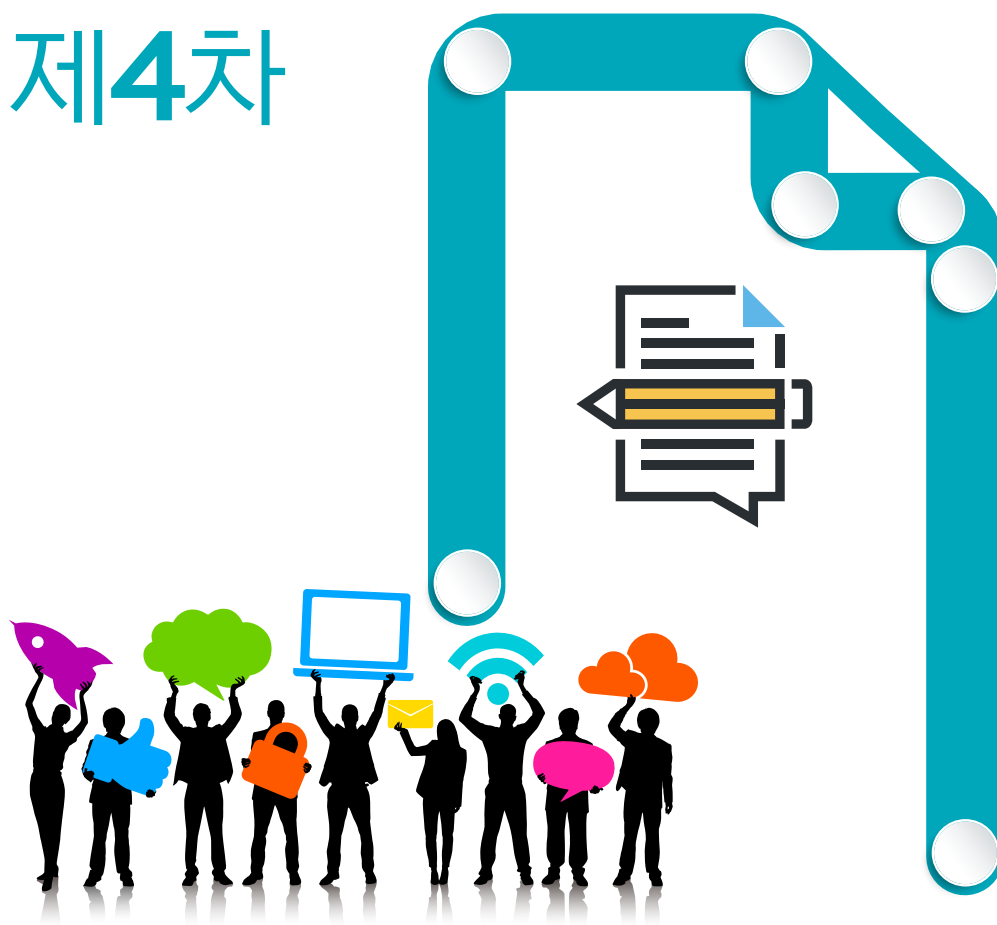


2021년도 국민대학교 (시범 운영)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모니터링단

성과자료집 제4차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모니터링단 성과자료집 4차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모니터링단**



Contents

01

교육 영역



02

연구 영역



03

산학협력 영역



04

기타 혁신 영역



교육 영역 1



K*-HAT 교육(인문기술융합학부)

‘K*-HAT 교육’의 모든 것!

(정치외교학과 이혜민)



소감문



저는 이번 2021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모니터링단에서 K*-HAT 교육을 담당한 정치외교학과 이혜민입니다.

제가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모니터링단에 처음 지원하게 된 이유는 자기설계융합전공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영역의 세부 프로그램 중에서도 자기설계융합전공이 속하는 분야인 ‘K*-HAT 교육’을 1순위로 지원하였고 결국 제가 담당했습니다.

제가 학생모니터링단이 되기 이전에는 자기설계융합전공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설계융합전공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 연계융합전공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하였지만,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넘어서 구체적인 정보나 다른 분의 경험담 같은 정보는 얻을 수 없어 아쉬움이 남았던 참에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모니터링단을 알게 되었고 자기설계융합전공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지원한 것입니다.

실제 학생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인문기술융합학부 담당자님을 만나고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얻으며 이전보다 자기설계융합전공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고 뿌듯했던 것은 담당자님과의 인터뷰에서 저의 질문으로 인해 담당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마치 제가 K*-HAT 교육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 같았기에 그 이후부터는 이전보다 학생모니터링단에 자부심을 느끼며 활동하게 되었고 단순한 정보가 아닌 저 스스로 정보를 새롭게 해석하고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였지만, 그 시간 동안 국민대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은 무엇인지 등을 배울 수 있었고 담당자님의 노고 등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모니터링단 활동은 끝나지만, 활동하면서 알게 된 K*-HAT 교육의 장점과 성과들을 앞으로 다른 학생분들에게 소개하고 추천하며 K*-HAT 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고 고생해주고 계시는 모든 담당자님께 감사합니다.

‘K*-HAT 교육’이란 실용주의라는 국민대학교의 교육철학에 기반하여 실용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국민대학교만의 요구중심 교육체계와 이에 기반한 실용융합 교육을 의미합니다. K*-HAT의 HAT은 실용융합인재와 실용융합 교육을 의미하는 Humanities & Art & Technology의 약자로 다양한 계열의 실용적 융합을 말하며,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문기술융합학부’도 의미합니다.

K*-HAT 교육의 주축인 인문기술융합학부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제 1전공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전공을 연계·융합하여 본인이 원하는 실용적인 융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부이며, K*-HAT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연계전공 종류

연계전공이란 같은 계열인 2개 이상의 전공을 결합한 전공을 의미합니다. 현재 중국통상전공부터 실내제품디자인전공, 도덕·윤리전공(교직), 바이오기술전공 등 총 8개의 연계전공이 존재하며, 3차~6차 학기에 다전공 혹은 5차~8차 학기에 부전공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연계전공명	참여학과
중국통상전공	국제통상+중국정책
실내제품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공업디자인+의상디자인+금속공예
도덕·윤리전공(교직)	교육학+정치외교+한국역사+법학부+사회학+교양
바이오기술전공	임산생명+식품영양+응용화학+바이오발효융합
바이오헬스케어식품연계전공	바이오발효융합+식품영양
응용심리학전공	사회학+미디어+교육학+응용심리학
미디어애널리틱스전공	빅데이터경영통계+미디어
미래자동차전공	자동차공학과+자동차IT융합학과

2

융합전공 종류

융합전공이란 다른 계열인 2개 이상의 전공을 결합한 전공을 의미합니다. 현재 해외건설융합전공부터 미래기술융합디자인전공, 오픈소스거버넌스융합전공, 소프트웨어광고융합전공 등 11개의 융합전공과 이미 다른 학생에 의해 자기설계융합전공으로 만들어진 9개의 융합전공을 합하여 총 20개의 융합전공이 존재하며, 연계전공과 마찬가지로 3차~6차 학기에 다전공 혹은 5차~8차 학기에 부전공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융합전공명	참여학과
해외건설융합전공	기계시스템+경영학+재무금융+건설+건축시스템+교양
자동차·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전공	자동차공학+소프트웨어+자동차·운송디자인
Entrepreneurship융합전공	창업지원단+경영학+소프트웨어+공학인증교과목+교양
미래기술융합디자인전공	조형대학+경영정보+신소재공학
오픈소스거버넌스융합전공	소프트웨어+행정학+사법학
소프트웨어광고융합전공	소프트웨어+광고홍보학
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전공	소프트웨어+경영정보
디지털엔터테인먼트전공	소프트웨어+영상디자인
소프트웨어미디어융합전공	소프트웨어+미디어
바이오4차산업거버넌스융합전공	바이오발효융합+소프트웨어+행정학
지식재산융합전공	경영학+공업디자인+사법학+융합전자공학

3

자기설계융합전공 종류

자기설계융합전공이란 학생 스스로 원하여 다른 계열인 2개 이상의 전공을 결합하여 새롭게 만든 전공을 의미합니다. 학생이 직접 만든 자기설계융합전공은 지금까지 문화예술경영학전공, 금융공학융합전공,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전공이 승인되어, 직접 만든 학생에게는 자기설계융합전공으로 추후의 다른 학생들에게는 융합전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계·융합전공과 달리 3차~6차 학기에 다전공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기설계융합전공은 매 학년도 1학기에 신청공고가 이루어지며,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여 전공별 교수님들과 면담을 진행하여 승인을 얻고, 인문기술융합학부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및 심의를 거쳐 승인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자기설계융합전공은 시작 이래로 지금까지 총 9개 전공의 신청과 승인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승인율이 100%가 될 수 있던 이유는 신청과정에서 참여전공 교수님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조언을 얻어 더 전문적이고 특화된 자기설계융합전공을 만들 수 있었기에 지금까지 신청한 모든 전공이 승인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융합전공명	참여학과
과학기술사회학전공	나노전자물리학+사회학
금융공학융합전공	경영학+재무금융전공+정보보안암호수학
문화예술경영학융합전공	경영학+음악학부+무용
미술·디자인사학융합전공	한국역사학+회화전공+시각디자인+영상디자인
문화예술사회학융합전공	국어국문학+사회학+회화+영화
미디어스포츠마케팅융합전공	미디어전공+스포츠산업레저학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빅데이터경영통계+소프트웨어
경제·수학융합전공	경제학+정보보안암호수학
식품경영학융합전공	경영학+식품영양학

현재 연계·융합전공 및 자기설계융합전공에는 25개의 전공에 걸쳐 재학생 255명과 휴학생 64명을 합쳐 현재 총 31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전공, 디지털엔터테인먼트전공,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등 전공 특성상 컴퓨터 혹은 프로그램을 다루는 전공에서 소프트웨어학부의 융합 전공에 상당수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학과 학생들이 임용과 관련하여 도덕·윤리전공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연계·융합전공 및 자기설계융합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20개의 전공에 걸쳐 총 101명으로 주로 자기설계융합전공을 직접 설계한 학생의 상당수가 이수하고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수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K*-HAT 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물었을 때, ‘우리 학과와 비슷한 계열의 수업을 많이 들어보고 싶었는데 하나의 전공으로 묶여있어서’, ‘내가 듣고 싶은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두 전공 모두에 관심이 있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는데, 타학교 수업을 듣는 것에 한계를 느껴서’, ‘미래 전망있어 보여서’, ‘목표하는 업계와 관련되어서’ 등의 답변과 K*-HAT 교육의 얻은점, 좋았던점, 장점을 물었을 때, ‘새로운 분야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원하는 설계로 전공을 들 수 있다’, ‘듣고 싶은 분야의 수업을 들 수 있어서 좋았다’, ‘원하는 계열의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등의 답변을 통해 K*-HAT 교육이 사회적 요구 및 필요에 반응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관심분야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넓히고 미래의 원하는 직무에 대한 융합적인 지식을 습득함에 따라 요구중심의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전공통계표(이수중인자)

연 계 융 합 전 공 · 자 기 설 계 융 합 전 공	학부(과)	학생 수 (재/휴)	
		4	1
	바이오헬스케어 · 식품연계전공	6	1
	자동차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전공	3	0
	Entrepreneurship융합전공	11	7
	미래기술융합디자인전공	9	2
	소프트웨어광고융합전공	38	11
	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전공	6	4
	디지털엔터테인먼트전공	8	2
	소프트웨어미디어융합전공	2	2
	영상스토리텔링융합전공	2	1
	바이오4차산업거버넌스융합전공	12	6
	중국통상전공	5	0
	실내제품디자인전공	26	5
	도덕 · 윤리전공	7	2
	바이오기술전공	5	1
	금융공학융합전공	8	2
	문화예술경영학융합전공	2	1
	미술 · 디자인사학융합전공	2	1
	심리학전공	0	1
	지식재산융합전공	5	3
	문화예술사회학융합전공	38	2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5	0
	미디어스포츠마케팅융합전공	2	0
	식품경영학융합전공	44	8
	응용심리학전공	5	1
	미디어애널리틱스전공	255	64
	총계		

다전공통계표(이수자)

연 계 융 합 전 공 · 자 기 설 계 융 합 전 공	학부(과)	학생 수
		8
	바이오헬스케어 · 식품연계전공	3
	자동차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전공	3
	미래기술융합디자인전공	1
	오픈소스거버넌스융합전공	3
	소프트웨어광고융합전공	35
	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전공	5
	디지털엔터테인먼트전공	2
	소프트웨어미디어융합전공	2
	영상스토리텔링융합전공	1
	과학기술사회학융합전공	2
	중국통상전공	17
	도덕 · 윤리전공	10
	바이오기술전공	1
	에너지 · 환경	2
	문화예술콘텐츠전공	1
	문화예술경영학융합전공	1
	미술 · 디자인사학융합전공	1
	문화예술사회학융합전공	1
	미디어스포츠마케팅융합전공	2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101
	총계	

현재 연계·융합전공 및 자기설계융합전공에는 25개의 전공에 걸쳐 재학생 255명과 휴학생 64명을 합쳐 현재 총 31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전공, 디지털엔터테인먼트전공,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등 전공 특성상 컴퓨터 혹은 프로그램을 다루는 전공에서 소프트웨어학부와와의 융합 전공에 상당히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학과 학생들이 임용과 관련하여 도덕·윤리전공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연계·융합전공 및 자기설계융합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20개의 전공에 걸쳐 총 101명으로 주로 자기설계융합전공을 직접 설계한 학생의 상당수가 이수하고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수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K*-HAT 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물었을 때, '우리 학과와 비슷한 계열의 수업을 많이 들어보고 싶었는데 하나의 전공으로 묶여있어서', '내가 듣고 싶은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두 전공 모두에 관심이 있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타학교 수업을 듣는 것에 한계를 느껴서', '미래 전망있어 보여서', '목표하는 업계와 관련되어서' 등의 답변과 K*-HAT 교육의 얻은점, 좋았던점, 장점을 물었을 때, '새로운 분야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원하는 실제로 전공을 들을 수 있다', '듣고 싶은 분야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원하는 계열의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등의 답변을 통해 K*-HAT 교육이 사회적 요구 및 필요에 반응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관심분야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넓히고 미래의 원하는 직무에 대한 융합적인 지식을 습득함에 따라 요구중심의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예사 꿈꾸며 나만의 전공을 만들었어요



최근 박물관에서의 전시는 물론 사료에 의한 역사적 접근과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되어 진행되고, 특히 미술가, 디자이너와의 협업이 중심이 되는 전시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박물관·미술관 기록관 도서관 등 다양한 영역을 가진 기관들이 점차 경계가 흐려지고, 서로를 가려지려는 기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시작반어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능숙히 활용할 수 있는 사학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여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다른 학교에도 사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나 굳이 국민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하술 디자인 분야에서 국민대학교가 한국에서 가장 연구 및 작품 활동이 활발하게 이

이제는 학교가이 때를알고나서한 국사학과에서 사학을 전공한것은 당연한 이치. 하지만 분야와 전문 교육은 별개로 생각하고 기꺼워야한다. 실제로 매슬라프의 초경험적자아 실현은 수많은 사람으로 크게 성공한것을 관측해서 배워야 하고, 그결과 학과에서 배워야 할 교육은 거의가 주어진것이 아니다. 많은 사학자를 강연 해오는데 대학교와 초경험에서 주어진 것일 뿐 수업을 하고, 교과에서는 프라자에서 디자인으로 공부해 보는 등 통틀어 이따기다 자기실현을할것을 강요해 주지않는다. 이렇게 다양한 현상이 한국역사학과 미술학부 회화전시사각 디자인학과 영상디자인학과 같은것을 구별할 수있을 것이다.

미술사학 전공은 이미 여러 대학 학부 과정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미술 디자인사학을활용한 많은 특화된 분야인 미술사학에만 아니라 디자인사학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였다는 것이다. 학부 과정 중에서도 디자인사학 관련이 개설된 대학에 전후한 실정에서도 이는 나름 의의 있는 시도라 자평할 수 있다. 대학원을 보면, 다양한 전공의 학제적 융합에 국한되지 않고, 심지어 디자인사학 전공에 디자인사학 전공을 할 이고, 일반 대학원 과정에서는 유일하게 국영 사립 대학에 디자인(사)전문학사가 개설되어 있다(표 1).

[illegible]

저는 현재 제가 학부에서 배운 역사학적 접근과 시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기 위해 쓰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의 일정이 이 글을 쓰실 국민대학교 구성원분들에게도 알기를 기대하여 글을 하합니다.

09

제가 꿈꾸는 **예술경영**을 경험했어요



한양대학교, 국민대학교와 자기설계융합전공을 통하여 문화예술융합융합전공을 설계하여 순천대학교까지 공대생은 경쟁학점을 확보한 경쟁대학이다. 순천융합대학 인재를 키워내기 위하여 여러 제도과 질을 향상시켰지만 실제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라 할 때 자신이 오로지 하고자 하는 것만 하라는 열광적인 분위기를 부추기는 일이 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설계융합전공은 아직 대학 생활 중에서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학우들에게서 다양한 질문을 전수 수업이 도움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로 제공해주었습니다. 다른 예술을 사랑하고 추구하시지만 수학은 경쟁학과에서 애초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 3년 내내 땀 흘려 콜센터, 영업, 영업 보조 업무를 맡아 온 국내 대표 기업인 이의원은 졸업생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취업 준비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소개했다. 이의원은 취업 준비생에게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취업 준비생에게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취업 준비생에게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10

미술·디자인사학융합전공이라는 자기설계융합전공을 설계하고 이수한 분은 학부 정규 과정에서 디자인사학 과정이 개설된 대학은 한국에 전무한 상황에서 의미있는 시도라고 자평하며, 본 전공을 이수함에 따라 다양한 연구 및 사업 참여와 전시 기획 및 개최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부에서 배운 역사학적 접근과 시각언어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예술경영학융합전공이라는 자기설계융합전공을 설계하고 이수한 분의 경우, 예술가들과 예술교육콘텐츠를 만들거나 예술기획 공모전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의 방법론을 적용시켜보는 다양한 기획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예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문화예술경영학융합전공 융합학사를 기반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대학원)에 합격하여 학문적으로 더 배우는 중일 뿐만 아니라 문화 관련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설계융합전공을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한 융합적이고 특화된 학습을 진행하며, 이러한 학습과 경험을 기반으로 특별한 기회를 얻고 자신만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사회가 필요로하는 인재 및 능력이 자기설계융합전공과 잘 상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수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K*-HAT 교육에서 아쉬운 점을 말할 때, ‘정보가 많지 않다’, ‘수강신청 일정 및 수업 간의 시간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교육과정 리모델링 공모전으로도 이미 만 들어져있는 교육과정을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 많은 분야를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수 중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을 때, 많은 학생이 현재의 연계·융합전공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이 참여하는 연계·융합전공이 생기길 희망했습니다. 이는 아직 연계·융합전공이 다양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실제 학생들이 원하는 연계·융합전공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자공학+생명 분야, 미래자동차전공+전자공학+응용화학, 스포츠+심리학, 교육+연극 등의 다양한 융합 교육의 요구를 알 수 있었습니다.

K*-HAT 교육에서는 학생이 주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연계·융합전공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열로 자기 스스로 전공을 만드는 자기설계‘융합’전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의 요구 중 서로 다른 계열의 2개 이상의 전공으로 이루어진 융합전공은 자기설계융합전공을 통한 설계가 가능하지만, 같은 계열의 전공을 기반으로 한 연계전공의 성격을 가지는 전공은 학생 스스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설계‘융합’전공뿐만 아니라 자기설계‘연계’전공으로까지 K*-HAT 교육을 넓히는 것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국민대학교 본교에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원이 있으며 본교 대학원에서는 대학교와 달리 다소 광범위하지 않고 더 전문적이고 특화된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학교 수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학원 수업까지 참여전공을 확대한다면, 다양한 배움의 범위를 넓힐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배움의 깊이까지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생모니터링단을 진행하며 많은 학생이 아직 연계·융합전공과 자기설계융합전공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픈 융합강좌DAY(매학기), 연계융합전공·자기설계융합전공 온라인설명회(매학기), 내가 만드는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 설계 공모전(2학기) 밖에도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자기설계융합전공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는 설명회에서 정보를 얻고,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자기설계융합전공을 제출하여 피드백을 받은 후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신청하는 과정을 일러주는 것도 설계를 직접해야한다는 부담감을 줄여 실천하도록 이끄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Civic Engagement(북악인성교육센터)

Civic Engagement 프로그램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 이승결)



소감문



저는 이번 학생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학교 교육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학 교육을 대학교의 정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의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교육의 큰 뿌리임에는 틀림없지만, ‘Civic Engagement’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하면서 교육의 또 다른 목표는 사회 기여, 나눔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의식, 집단지성, 사회적 자기효능감 등은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세계적 위기로 인해 대면을 통한 사람과의 만남과 교류의 경험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Civic Engagement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함께한 학생모니터링단 자원분들이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유익한 프로그램을 학교 학생들에게 쉽게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노력이 차기 학생모니터링단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프로그램 소개

1. 핵심 키워드

‘Civic Engagement’는 북악인성교육센터 측에서 기획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봉사활동 형태에서 벗어나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음 아래와 같다.



2. 분류

교과	비교과	기타
사회참여활동 교과 (매핑, 전공연계)	전교 차원 활동	특강 진행

1) 사회참여형 교과 운영

학생과 교원이 본인의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북악인성교육센터 측에서 매 학기마다 교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참여교과목 신청을 통해 교과목이 편성되어 운영된다. 사회참여교과목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커뮤니티 매핑’을 적극 활용한 ‘매핑형’과 학생들의 흥미와 교원의 지도 방향에 따라 자유로운 주제와 방식을 채택하는 ‘전공연계형’이 있다.

다음의 예시는 2021학년도 2학기 사회참여교과목으로 선정되어 진행된 활동 중 일부이다.

- ‘공공 데이터의 수학적 분석과 활용’(매핑) -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고급응용수학>(염용진 교수님)
- ‘지역주민들을 위한 응급처치 매뉴얼 리플렛 제작’(전공연계) - 스포츠건강재활학과 <응급처치및안전>(전지현 교수님)
- ‘예술과 함께하는 삶, 사회, 공동체(코로나19 가상음악회)’(전공연계) - 관현악전공 <사제동행세미나>(우지연 교수님)

2) 비교과 운영

전공의 경계가 없고 규모가 큰 사회 활동의 경우에는 전교 차원으로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 개최된 평창 패럴림픽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장애인 편의 시설 지도 만들기 활동에 많은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는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등 지역 기관 및 사회와 협력한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독려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 학기마다 ‘커뮤니티매핑데이’를 1회 실시하기도 하였다.

3. 강점

첫째, 본 프로그램에 선정된 사회참여교과에 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학생과 교원의 아이디어가 사회변화와 개선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는 공공기관, 외부 단체와 협업 또는 그들에 도움을 요청하는 데 큰 보탬이 된다.

둘째, 교과목 수업 내에서 학생과 교수가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사회문제의 해결에 대해 논의, 고민하는 ‘현장 참여형 수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이는 교원들의 교육방식에 있어서 전달식 강의 수업이 많은 기존 교과목에 새로운 활기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다른 활동에서 느끼기 어려운 공동체 의식, 사회적 자기효능감 등의 사회적 가치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고, 활동을 통해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성장하는 청년이 될 수 있다.

2 추진 성과

1.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사회적 상황은 대면 중심의 본 프로그램의 운영에 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북악인 성교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1학기에 사회참여교과목 수가 급격히 줄었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기존의 오프라인 활동과 더불어 비대면 수업에 발맞춘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기획하여 위기에 대응해나갔다. 그 결과, 2020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게 사회참여 교과목 수를 회복하였다. 센터 측의 이러한 노력은 언택트 시대 속에서도 많은 국민대 학생들이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2. 목적 달성 평가

참여형 교육	공동체정신 함양	공공성
0	0	0

첫째, 본 프로그램은 ‘참여형 교육’ 키워드를 잘 구현해내고 있다. 사회참여교과목 운영을 통해 기존의 일방향 중심 수업에서 쌍방향 참여형 수업으로의 수업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핵심 방법론으로 ‘커뮤니티 매핑’을 선정하여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공동체정신 함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국민대학교 학생들에게 위 활동들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나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구나!”,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었구나!”와 같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값진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공공성’ 항목에 부합한다. 본 프로그램의 사회교과목 활동지원금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의 있는 학생들과 지역 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매핑 활동 관련 데이터 일부가 ‘스마트 서울맵’ 온라인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다. 이 데이터들은 오픈 데이터로서, 다른 이용자들이 또다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3 개선 방안 제안

1. 홍보 확대 필요

현재 학생들이 Civic Engagement(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검색을 하고자 할 때, ‘북악인성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와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얻는 곳은 ‘ON국민’ 홈페이지이며, 이곳에서는 본 프로그램 관련 공지사항이나 게시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필자는 본 프로그램 홍보 관련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매 학기 사회참여활동 교과목 신청 기간에 관련 공문을 ‘ON국민’ 공지사항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학생과 교원에게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인스타그램 계정에 프로그램 관련 게시물을 카드 뉴스 형식으로 업로드하여 학생들의 프로그램 관심도 및 이해도를 증진시킨다.

2. 다양한 지역사회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모색

코로나 상황이 호전될 경우, 이전처럼 다양한 지역 기관과 협업한 형태의 학생들의 현장참여형 공헌 프로그램 기획을 확대해줄 것을 제안한다. 필자는 코로나 펜데믹 이전에 진행된 ‘평창 패럴림픽 커뮤니티 매핑’, ‘정릉3동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등 전교적 차원에서 수행된 지역 협업 활동들이 본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더욱 빛내줄 것으로 기대한다.

3. 차기 학생모니터링단에 대한 제안

현재 학생들이 Civic Engagement(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검색을 하고자 할 때, ‘북악인성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와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얻는 곳은 ‘ON국민’ 홈페이지이며, 이곳에서는 본 프로그램 관련 공지사항이나 게시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필자는 본 프로그램 홍보 관련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해당 교수님의 동의를 얻어, 사회참여활동 교과목 수업을 참관할 것. 실제로 사회참여활동 수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단 요원이 현장 조사하여 본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프로그램 참여 독려할 것을 제안함.
- 모니터링단 요원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 협동 활동을 제안함.



TEAM교육인증(TEAM교육인증센터)

TEAM 교육인증

(행정학과 정성훈)



소감문



저는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 국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모니터링단에서 TEAM 교육인증을 담당해 활동했습니다. 약 4개월간의 활동 속에서 국민대학교의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프로그램들을 조사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며, 그렇게 모인 결과물들을 학우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활동한 TEAM교육인증은 물론이고, 그 이외의 프로그램까지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다양한 혁신사업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활동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연락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이를 결과물로 만들어내면서 저 개인에게 있어 다양한 측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에는 TEAM교육인증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학우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우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절히 소개하고, 대내외적으로 성과들을 알리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모니터링단이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고 수혜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모니터링단 활동과정 소개

■ 담당 프로그램 : TEAM교육인증

■ 활동과정

- 1차 보고서 : TEAM교육인증 프로그램 소개 (2021.11.28.)
- 2차 보고서 : TEAM교육인증 프로그램 성과 소개 (2021.12.26.)
- 3차 보고서 : TEAM교육인증 프로그램 피드백 (2022.01.28.)
- 활동 결과물



2

TEAM교육인증 활동 소개 : TEAM교육인증은 어떤 프로그램일까?

- TEAM교육인증 : 2019학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국민대학교의 교육철학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공동체 정신”과 성곡 김성근 선생의 “실용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체험형 교육모델
- TEAM형 인재 양성에 필요한 융·복합 및 교과·비교과 연계교육을 강화해 교육과정을 재설계한 학과(부) 및 전공을 지원하는 것
- TEAM교육인증은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한 21개 학과(부) 및 전공이 인증을 받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받고 있음

1. 전공집중육성분야 CA(Concentrate Area)의 설정

TEAM교육인증에 참여하는 학과(부) 및 전공은 아래와 같이 각 전공의 미래를 위해 선택과 집중할 전공집중육성분야 CA(Concentrate Area)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그에 맞추어 운영함

행정학과	데이터사이언스	임산생명공학과	목질바이오신소재
사회학과	트렌드분석/미래예측	나노소재전공	에너지소재
법학부	문화예술창의산업분야	바이오의약전공	항체의약
기계공학부	친환경인공지능 생산시스템	식품영양학과	정밀영양디자인기반 고부가식품기술
소프트웨어전공	빅데이터/머신러닝	정보보안암호수학과	정보보안
스포츠교육학과	노인&장애인 체육	바이오파효용합학과	바이오키의약융복합
스포츠건강재활학과	운동재활	경영정보학부	경영정보시스템 (MIS)
연극전공	연극 제작	광고홍보학전공	퍼스널 콘텐츠 마케팅
산림환경시스템학과	도시생태와 환경정보	나노전자물리학과	양자기술

2. 유레카 프로젝트(Eureka Project) 교과목 개설

TEAM교육인증에 참여하는 학과(부) 및 전공은 유레카 프로젝트 교과목 개설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론-실습’의 구조에서 ‘체험-이론-적용’의 구조로 전환하게 됨

유레카 프로젝트 도입 전
“이론-실습”

기초적인 이론 중심의 교과목
(ex. 00개론)

이론 응용 실습 중심의 교과목
(ex. 00연습)

유레카 프로젝트 도입 후
“체험-이론-적용”

유레카 프로젝트를
통한 체험

전공 이론을
배워나가는
다양한 교과목

이론을 적용하는
교과목

2. 융·복합(Convergence) 교과목의 도입

- 팀 Class : 기존의 학문영역·교과·비교과의 고정관념을 탈피해 서로 다른 학과의 학생들이 이질적인 두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는 국민대학교만의 혁신적 창의 융합형 교육모델
(ex. 행정 '공공정책리더십과 디자인사고' + 자동차운송디자인 '인간과 모빌리티': 공공 휴머니이징 모빌리티)
-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교과목 : 시민참여활동을 통해 전공과 연계하여 사회 문제점 및 이슈에 대해 직접 참여해 학습하고, 교과·비교과의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 교육과정
(ex.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매핑, 정릉3동 마을공동체 활동 등)
- TEAM교육인증 참여 학과(부) 및 전공은 팀 Class 교과목과 시민참여 교과목을 각 두 과목 이상 개설하여야 함

3

TEAM교육인증 성과 소개

- CA를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형 교과 개설 : 전공별 전공집중육성분야인 CA(Concentrate Area)에 맞는 전공 체험형 교과를 개발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에 대한 관심을 고취함
- 체험형 교과를 넘어선 각종 프로그램 개설 : 전공 체험형 교과를 넘어서 으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전공별로 개발해 학생들의 대내외 활동에 동기를 부여함
- 학생들이 만들어 낸 다양한 대내외 성과 : 학생들은 TEAM교육인증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공 모전, 논문, 자격증, 경진대회, 서포터즈 등 교내외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도출해 냄
-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 및 만족도 개선 : 설문조사에 따르면 TEAM교육인증 참여 전공의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생활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
- 학과(부) 및 전공별 성과 예시 : 행정학과(2020 본인증), 산림환경시스템학과(2021 본인증)

행정학과



- 유레카 프로젝트 : 원전 건립이라는 가상 시나리오에서 팀별로 정책 이해관계자가 되어 정책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업을 운영함. 학생들은 직접 자신이 맡은 정책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되어 정책대안과 그 근거를 마련해보고, 다른 팀을 설득할 전략을 모색해 토론의 과정에서 합의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함. 이를 통해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넘어 정책 현상 속에서 다양한 입장과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를 조정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음
- 다양한 TEAM교육인증 프로그램 : 학생들이 '데이터사이언스'를 주제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공공부문 문제해결 프로젝트에 예산과 교수 멘토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공모전 '드림 챌린저(Dream Challenger)', 공무원·공기업·사기업·대학원의 4개 분야에서 취업동아리를 운영해 학생들이 직접 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해 활동하는 데에 예산과 교수 멘토링을 지원하는 취업동아리 '드림(Dream)', 회귀분석·머신러닝(ML)·지리정보시스템(GIS) 등 다양한 주제로 방학 중에 진행된 '데이터사이언스 분야 특강' 등
- 다양한 TEAM교육인증 성과 : 드림 챌린저를 통해 호수생들이 KIPA-KAPA 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 한국행정학과 대학생 학술논문대회 등 다양한 대외 공모전에서 수상함. 또한, 유레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 분야 흥미가 고취되고, 대외 활동의 동기가 촉진되면서 자격증, 공모전, 서포터즈, 경진대회 등에서 많은 성과를 도출함

산림환경
시스템 학과



- 유레카 프로젝트 : 학생들이 직접 도시생태/환경정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를 주제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는 체험형 수업을 운영함. 학생들은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멘토링 속에서 ‘탄소저감’, ‘반려동물’, ‘등산’, ‘산림관광’ 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대외 성과도 도출함. 또한, 이를 넘어서 유레카 프로젝트 이전에는 ‘생태사회와 현장실습’이라는 현장 체험형 교과를 도입하고, 이후에는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다시 하는 ‘에코스타트업 아카데미’라는 교과목을 도입함
- 다양한 TEAM교육인증 프로그램 : 연 2회 취창업 페스티벌을 주최해 프로젝트 결과물을 소개하고 선-후배 멘토링을 진행하며 기업관계자와 동문을 초빙해 진로 관련 특강 진행, ‘유레카 프로젝트 우수 아이디어 자료집’ 제작, ‘산림분야 진로가이드’를 제작해 산림분야의 진로와 기관/기업을 소개, 교수진을 중심으로 기업/기관 현장체험 기회 제공,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수업·멘토링예산·공간 제공
- 다양한 TEAM교육인증 성과 : 교과과 비교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낸 프로젝트들이 다양한 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산림분야 빅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디어 통합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룸

4

TEAM교육인증 활동 피드백

- 2021년도 TEAM교육인증 어떤 점이 어려웠을까?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학사운영
 -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대학교는 2021년도에도 비대면 학사운영 기조를 유지함
 - 팬데믹은 대학사회 곳곳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고, 2021년도 TEAM교육인증의 프로그램들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 1) 비대면 기조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과 교과목이 비대면으로 운영되면서, 가능한 활동의 내용과 수준에 큰 제약들이 발생함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학사운영 기조는 TEAM교육인증을 통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과목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게 만들어 운영과 참여의 다양한 제약을 만들었음
- 2) 비대면 수업 운영 기조로 인해 많은 활동이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의 학교 방문을 제약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에 많은 제약이 존재함
 - 팬데믹으로 인해 다양한 교과목 및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이 학교에 대면으로 방문할 기회도 줄어들어 학생들이 TEAM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에 큰 제약이 발생함
- 이러한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학사 운영은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의 기회와 적극적인 학생 참여의 기회를 제약하여 TEAM교육인증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공동체정신’과 ‘실용주의’를 구현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발생시킴
- 2022년의 TEAM교육인증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 2022년은 위드코로나/포스트코로나 시대
 -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TEAM교육인증 활동에 많은 제약을 경험함
 - 이제 다가오는 2022년은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의 시대임.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방향성이 TEAM교육인증에 구축되어야 함

- 1) 비대면 대학생활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공동체정신’과 ‘실용주의’를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함
 - 팬데믹에 의해 대학생활을 비대면으로 보냈어야 했던 학생들에게 국민대학교의 ‘공동체정신’과 ‘실용주의’를 심어주고, 대면 대학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함
- 2)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공에 대해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교과목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함
 - 비대면을 넘어 새로운 대면을 시작하는 2022년에는 기존 프로그램과 교과목을 넘어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며, 전공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교과목 다양화가 필요함
- 3) 공간과 예산, 기자재, 물품, 멘토링 등 비대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 수성이 이루어져야 함
 - 비대면으로 인해 2021년의 TEAM교육인증은 다양한 자원의 적극적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 2022년에는 다양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더 풍성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함



S-TEAM Class(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2021년까지의 S-TEAM Class (소프트웨어학부 신채원)



소감문



저에게 학생모니터링단으로 활동했던 4개월은 결코 짧다고 말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학생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며 S-TEAM Class 담당자분을 만나 뵈어 인터뷰를 하고,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쏟는 노력을 느낄 수 있었고,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S-TEAM Class라는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이후 모니터링단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현재까지의 S-TEAM Class에 대해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며 학생들의 대변인이 되어 의견을 전달한 지

난 시간이 저에게는 뿌듯하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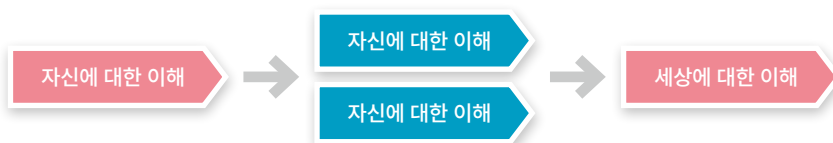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건의를 받아들이기 위해 학생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를 듣기 위해 학생모니터링단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학생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한 4개월은 더 나아진 2022년의 S-TEAM Class를 맞이하기 위한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학 생활 4년 중 학생모니터링단으로 보낸 4개월은 앞으로도 더없이 의미 있었던 시간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할 때 학교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모니터링단으로서의 활동을 끝마친 후에도 저는 꾸준히, 더 나은 국민대학교가 되기 위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1

S-TEAM Class 교과목 소개

S-TEAM Class는 모든 학과에 전공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모든 신입생은 1학년 1학기에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교과목의 개설 목적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활동과, 목적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번호	목적	진행 활동
1	자신에 대한 이해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한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신입생 진입 총 조사 진행
2	전공에 대한 이해	교육 체계, 연구 분야, 졸업 요건 및 진출 분야 등을 소개
3	대학에 대한 이해	동영상 강의를 통한 대학의 교육 철학 및 학생 지원 체계 이해
4	세상에 대한 이해	체험 기반 활동 진행 (커뮤니티 매핑, 소속 학과에서 진행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등)



S-TEAM Class는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여 전공, 대학을 거쳐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과정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S-TEAM Class 수업을 통해 신입생들은 낯선 대학 생활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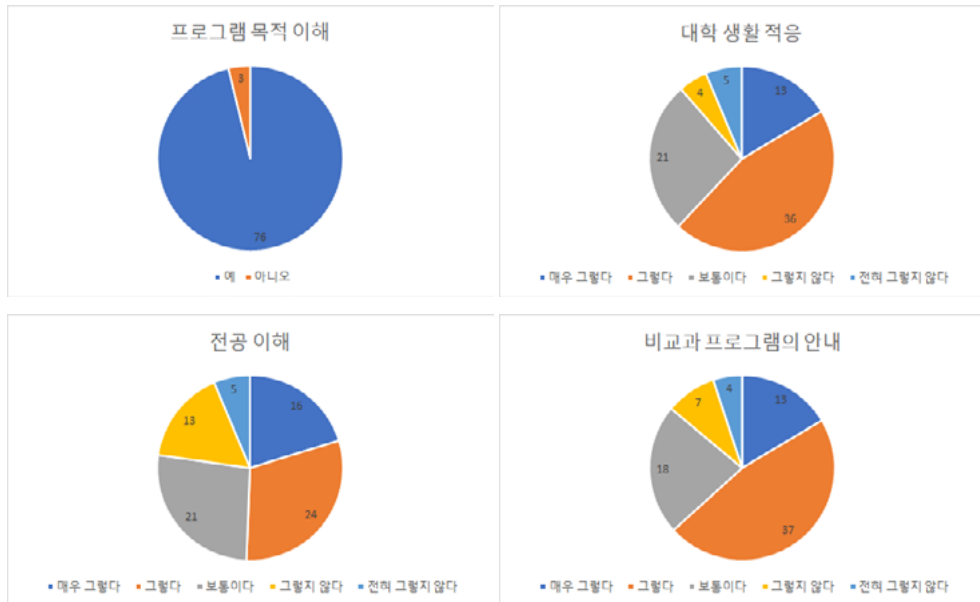
S-TEAM Class는 여타 교과목들과는 달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유동적인 수업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KMU 역량 진단, 진로 준비도 검사 등 설문조사가 요구되거나, 학생 지원 체계 안내 등 동영상으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E-campus를 통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됩니다. 반면 전공 소개 등 학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가 달라지거나,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 등의 수업은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하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대학의 교육 철학 및 학생 지원 체계 안내 (E-Campus를 통한 동영상 제공)	졸업 요건, 이후의 진출 분야 등 학부에 대한 소개
신입생 진입조사 (E-Campus를 통한 설문조사)	체험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이하 예시임) 학과별 비교과 프로그램 교수학습개발센터 튜터링 프로그램 북악인성교육센터 플러스알파 설명회
지도교수와의 상담	
KMU 역량 진단, 진로 준비도 검사 (E-Campus를 통한 설문조사)	

2

S-TEAM Class의 문제점 파악

S-TEAM Class는 2019년에 처음으로 개설된 교과목입니다. 19학번부터는 사제동행세미나와 S-TEAM Class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것으로 졸업 요건이 변경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신입생들은 강제배정을 통하여 S-TEAM Class를 수강하였습니다. S-TEAM Class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79명의 학생들이 응답에 참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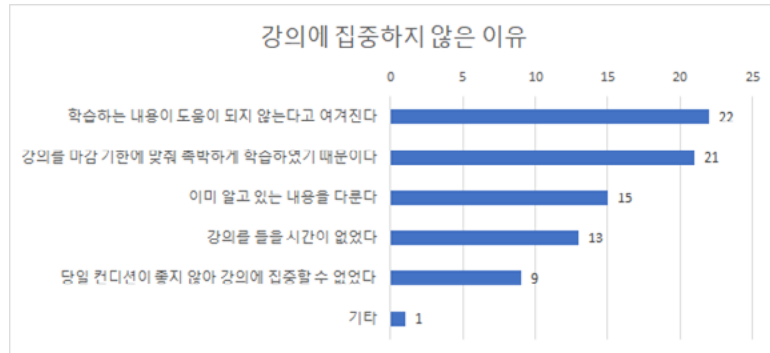


설문조사는 제공된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집중도와 비교과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S-TEAM Class의 개설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대학 생활 적응, 전공 이해,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에 있어 S-TEAM Class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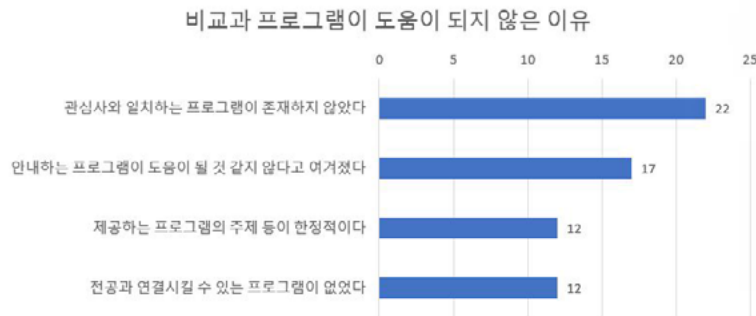
그러나 제공된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집중도와, 안내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측면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점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집중도에 대해, ‘보통이다’ 이하에 해당되었던 학생들이 59%(47명)로 생각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보통이다’ 이하로 느낀 학생들이 37%(29명)으로, 역시 낮지는 않은 비율이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강의에 대한 집중도는 5단계로 나누어서 조사하였습니다. 모든 강의를 집중해서 수강하였을 경우 ‘매우 그렇다’, 강의를 대체로 집중해서 수강하였지만 조금씩 놓친 부분이 있을 경우 ‘그렇다’,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집중을 하기도, 집중을 하지 않기도 했을 경우 ‘보통이다’, 학습한 강의가 절반, 틀어놓고 듣지 않은 강의가 절반일 경우 ‘그렇지 않다’, 강의를 틀어놓고 듣지 않았을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로 판단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에 집중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선택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 S-TEAM Class에 집중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20명이며, 기타 란에는 ‘과제 혹은 시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응답 항목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내용, 시간 관리 실패, 당일의 상황에 따르는 등의 기타 항목, 총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학습하는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룬다.’의 항목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 ‘강의를 마감 시간에 맞춰 촉박하게 학습하였기 때문이다’,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었다.’를 시간 관리 실패, 그 외의 항목들을 당일의 상황에 따르는 등의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처럼 분류하였을 때 각각의 응답자 수는 37명(47%), 34명(43%), 10명(13%)로, 약 절반의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의 내용이 집중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S-TEAM Class에서 안내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아쉬움을 느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S-TEAM Class에서 안내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31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된 이유는 다양했지만, 공통된 원인은 ‘여러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다양하지는 않은 비교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

S-TEAM Class의 개선 방향

지금까지 S-TEAM Class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S-TEAM Class의 한계점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의 S-TEAM Class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S-TEAM Class에서의 개선점은 앞서 보았던 온라인 강의에 대한 집중도와 비교과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습니다.

S-TEAM Class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역시 오프라인만큼의 몰입도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혼자 수업을 수강하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온라인 강의의 특성 상 학생들이 오프라인과 동일한 수준의 몰입도를 유지시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와 관련된 내용, 선배의 경험담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건이 포함된 내용 등을 온라인 강의에 포함하며 끊임없이 강의를 수정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 파악

프로그램의 시작 직후, 혹은 종료 직후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S-TEAM Class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파악한 후, 다음 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개선점으로 참고한다면 학생들이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내용과 불필요하였던 내용을 파악한다면, 이후의 프로그램 개선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선배의 경험담이 반영된 현실적인 도움

S-TEAM Class를 수강한 학생들 중 19학번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전면 비대면 수업을 겪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선후배 간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한, 또한 막 학교에 입학하여 선후배 간의 교류를 가질 기회가 없었던 신입생들을 고려한 강의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에게 보다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3. 전공을 기준으로 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분류

S-TEAM Class가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신입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임을 고려한다면,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전공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안내하는 방법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관련 전공을 모두 기입한다면, 이는 이후 학생들이 자기설계융합전공을 설계할 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S-TEAM Class를 수강하셨나요? (미수강 시 설문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① 예

2 언제 S-TEAM Class를 수강하셨나요?

① 2019년 ② 2020년 ③ 2021년

3 S-TEAM Class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강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목표로 하는 과목임을 알고 계셨나요?

① 예 ② 아니오

4 S-TEAM Class 수강이 대학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S-TEAM Class 수강이 전공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S-TEAM Class에서 안내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S-TEAM Class 강의는 집중이 잘 되는 편인가요?

- ① 매우 그렇다 (모든 강의를 집중해서 수강하였다.)
- ② 그렇다 (강의를 대체로 집중해서 수강하였지만 조금씩 놓친 부분이 있다.)
- ③ 보통이다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집중을 하기도, 집중을 하지 않기도 했다.)
- ④ 그렇지 않다 (학습한 강의가 절반, 틀어놓고 듣지 않은 강의가 절반이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강의를 틀어놓고 듣지 않았다.)

8 S-TEAM Class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중복 선택 가능)

- 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② 학습하는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 ③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었다.
- ④ 강의를 마감 기한에 맞춰 촉박하게 학습하였기 때문이다.
- ⑤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강의에 집중할 수 없었다.
- ⑥ 기타

9 S-TEAM Class에서 안내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 선택 가능)

- ① 관심사와 일치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았다.
- ②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주제 등이 한정적이다.
- ③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여겨졌다.
- ④ 전공과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 ⑤ 기타

10 S-TEAM Class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복 선택 가능)

- ① 비교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 ② 온라인 강의의 몰입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 ③ 개선해야 할 사항이 없다.
- ④ 기타



연구 영역 2



연구실인턴십(연구기획팀)

연구실 인턴십 소개와 개선점

(바이오발효융합학과 박영진)



소감문



안녕하세요. 연구실인턴십 학생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한 국민대학교 바이오발효융합학과 박영진입니다. 저는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기 위해 연구실인턴십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학생의 입장으로 프로그램의 장점과 불편한 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활동 중 가장 뜻깊게 생각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시선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모니터링이라는 학생과 관리자의 관찰자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연구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닌, 정말 관리자의 관점에서, 학생의 관점에서, 또는 지도교수의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기억이 납니다.

또,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은 기존에 몰랐던 교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과 같이 수행했던 ‘연구실인턴십’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도, 동료들의 모니터링단 활동인 ‘K-마음힐링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전반적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프로그램들이 이미 형태들은 잘 짜여져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료의 프로그램을 보고 솔직한 저처럼 학생들에게 일단 알리기만 한다면 잘 짜여진 프로세스에 의해 학생에게 도움이 되게끔 매끄럽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많은 프로그램들이 더욱 더 개선되어져 교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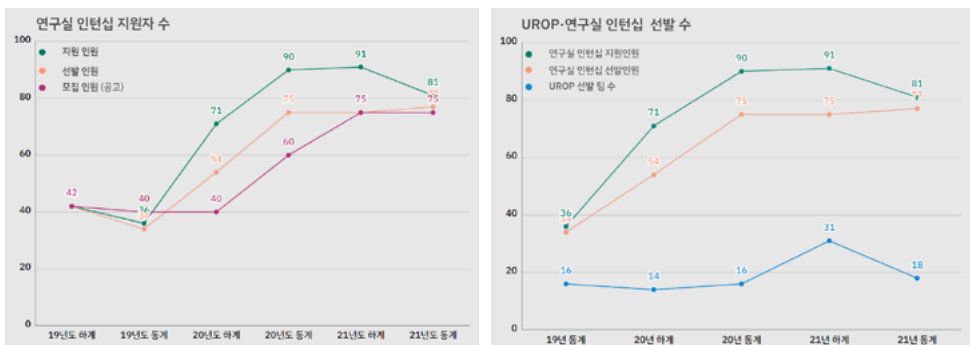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실 인턴십 모니터링에 참여한 국민대학교 바이오발효융합학과 박영진입니다. 먼저 저는 학생모니터링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의 관점으로 프로그램을 보기위해 이번 연구실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부터 수료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느꼈던 프로그램의 방향성이나 개선사항들을 재고해보며 연구실 인턴십의 성과 및 개선사항 등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1 연구실 인턴십 소개

먼저 연구실 인턴십은 연구기회가 없는 학부생에게 연구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9년도 하계 방학부터 시범운영 했으며 지금까지 약 3년간 매 방학학기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 교내 연구실에 출근하여 지도교수님과 논의 후 교수님의 연구주제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구실 인턴십은 기존 비슷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팀단위 프로젝트 UROP와 다르게 개인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회 제공의 차별성이 있고 인턴과정으로 분류되어 지원금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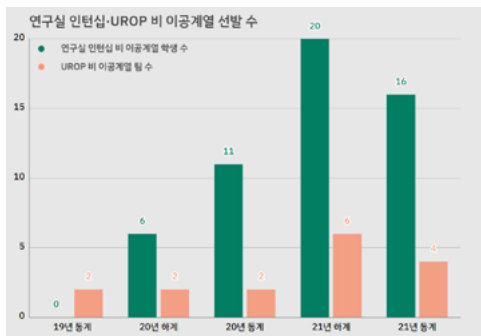
2 연구실 인턴십 현황

연구실 인턴십의 설립목표는 연구 분야에 대해 학부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그 관심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연구분야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도 변화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연구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변화를 연구실 인턴십과 UROP 지원자 수 변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실 인턴십의 모집인원은 19년도 하계 시범운영 당시에는 인원을 제한하지 않아 지원한 42명 모두 선발되었고, 19년도 동계 40명을 시작으로 20년도 동계에는 60명, 21년도 하계에는 75명으로 점차 늘어났습니다. 모집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지원 인원 역시 뒤처지지 않고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늘어난 지원 인원엔 맞추어 기존 모집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유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간 총 411명의 학생이 지원하여 기존의 모집인원인 332명보다 7.5% 많은 357명의 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UROP의 선발 팀 수의 대한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UROP는 연구실 인턴십 프로그램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설립목표는 연구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증가라는 측면에서 연구실 인턴십과 같지만, 최소 4명 이상의 학부생으로 구성된 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연구관심도를 알아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UROP의 선발팀 수는 19년도 동계부터 21년 동계까지 16, 14, 16, 31, 18, 총 95팀으로 5학기 동안 평균적으로 19팀이 선발되었습니다.



특히 연구실 인턴십 지원자수와 같이 살펴보면 20년도 동계와 21년도 하계에 연구실 인턴십의 지원이 90명, 91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기간 동안 UROP 선발팀 수가 기존 16팀에서 31팀으로 약 2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UROP는 팀당 최소 4명의 학부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소 60명 이상의 학생들이 더 선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실 인턴십의 선발인원이 늘어난 만큼 지원인원도 따라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학생들의 연구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관심도가 비슷한 자매 프로그램인 UROP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구실 인턴십은 20년 하계부터 비 이공계열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 연구실 인턴십과 UROP의 비 이공계열 선발 수를 따져보았습니다. 20년도부터 연구실 인턴십 비 이공계열 선발 학생이 6명 11명 20명 16명으로 지원 인원이 점차 많아졌고 UROP의 비 이공계열 선발팀이 2, 2, 6, 4팀으로 비 이공계열 학생들의 연구 분야 관심도도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연구실 인턴십 개선점

앞서 말했듯이 본 프로그램의 설립목표는 연구 분야에 대해 학부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그 관심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학생의 입장으로 연구실 인턴십 지원 시, 수행 중, 수행 후의 3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각각의 상황에 대한 개선사항을 생각해보았습니다.

1. 연구실 인턴십 지원 시 개선사항

학부생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방법이 홍보인데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와 학사공지와 같은 기본적인 안내 외에 홍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학부생 인턴십 선정률 그래프와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빌려오자면, 홍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선발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지원자 수가 많아지면 지원서를 열심히 썼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실제로 선정률을 살펴보면 시범운영인 19년도 하계를 제외하면 지원자 중 평균 85.9%가 선정된 것을



산학협력 영역 3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및 거점 구축(산학협력팀)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및 거점 구축 프로그램 성과 및 개선점

(법학부 박채연)



소감문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선배의 추천을 받아 모니터링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우분들이 저처럼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잘 몰라 접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활동을 통해 많은 학우분들에게 알리고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저희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학년때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모니터링 활동을 알게 되고 할 수 있고 또 알릴 수 있어서 뜻 깊고 좋았습니다. 저희의 활동을 통해 많은 학우분들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과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법학부에 재학중인 박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및 거점 구축에 관한 모니터링을 맡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정리했던 성과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및 거점 구축

먼저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및 거점 구축에 관한 소개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현장밀착형 산학협력이 가능한 산업단지 또는 인접 지역에 대학의 교육, 연구기능을 일부 이전하여 교육 -R&D- 고용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민대학교는 학교기업으로 HAL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 상암동 DMC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DMC 산학협력 연구센터는 방송국과 영상콘텐츠 제작사들이 모여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입주 시 영상 콘텐츠 관련 기술개발 및 콘텐츠 제작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 DMC에 입주한 경험을 보면 DMC 입주시설 및 장비를 재학생들이 영상 분야 창업보육에 활용할 수 있었고, 현장의 전문기업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외에도 우리 대학 영화전공의 실습교과목을 통해 다양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산업계 대표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향후 현장프로젝트 수주를 안정화하는 동시에 현장실습 효과 및 취업률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학교기업 hal 엔터테인먼트는 국내외 영상업계 리더기업인 넷플릭스, 스튜디오드래곤, 알고리즘 미디어랩 등 전문업체와 콘소시엄을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을 진행하며 상암동dmc 산학협력연구센터 공동입주를 통해 콘소시엄 업체와 유기적으로 업무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기업은 국민대학교 교내에 국내 최상위권 수준의 촬영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영상콘텐츠 제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영상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재학생을 참여시킴으로써 학교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 드라마 제작 선도기업인 넷플릭스 및 스튜디오드래곤 등과의 업무협력 및 공동제작을 해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암 디지털미디어밸리에 산업단지 캠퍼스 거점을 확충하여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예술공장, AI양재허브센터와의 MOU체결을 통해 산업단지 캠퍼스 신규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기업은 영상콘텐츠 제작사업과 더불어 지식자산 상용화 사업과 지역사회연계사업과 영상콘텐츠 교육사업을 하며 학교기업 플랫폼 활용사업인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 사업과 스타트업기업과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 사업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 사업은 학교기업에서 영화전공 창업동아리에 대한 적극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 영상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동아리를 기반으로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학교기업 및 영화전공에서는 재학생 중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학교본부의 유관부서와 연계하여 창업지원 프로세스에 따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예비창업자에게 현장 적용형 영상콘텐츠 제작과제에 참여시켜 창업실습을 바로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과 관련된 영상콘텐츠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수준별로 포트폴리오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며 초기 인큐베이팅을 위하여 학교기업에서 프로젝트 용역 부여로 창업에 대한 전문경험을 습득하고 사후 컨설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대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5. 스타트업기업 연계사업

스타트업기업 연계사업 경우에는 학교기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을 거친 후에 영상분야 스타트업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후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학교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학교기업에서 수주하는 영상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전부 또는 일부를 매칭하여 최소한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에서 제작하는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에서 최종 결과물을 검증하는 형태로 콘텐츠 공동 제작하여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업 경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서울 소재 대학으로 현장밀착형 산학협력이 가능한 산업단지 또는 인접 지역이 부족합니다. 또한 교육-R&D-고용 연계체제 구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캠퍼스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캠퍼스의 내부 기업을 주기적으로 미팅하는 밋업데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교육-R&D-고용 연계체제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기업의 경우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 인적 자원이 스타트업기업을 창업할 경우 후속지원을 하고, 스타트업 기업에 맞는 영상프로젝트를 매칭하여 고정적인 일거리를 지원하며, 경력이 축적된 스타트업기업과는 영상콘텐츠 공동제작을 추진하는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기업에서는 국민대학교 영화전공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과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습 후 만족도 조사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피드백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장실습 교과 개설 단계에서 재학생의 특성과 재능을 반영하여 현장실습 교과목을 매칭하고 현장실습 교과수행 과정에서는 프로젝트 수시관리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지원하며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이후 현장실습 평가 및 개선단계에서는 만족도 및 개선의견을 분석하여 차기 사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을 타 대학과 연계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기업 교과 중 현장실습 교과목의 일환으로 단편영화를 제작하고 해당 작품에 타 대학 재학생을 스태프로 활용하여, 학교기업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에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학교기업 현장실습 작품에 4개 타 대학 총 5명의 학생이 실습에 참여하고 참여 역할 역시 제작팀, 미술팀, 스토리보드팀 등 다양하게 작품 창작에 참여합니다.

대학간 콘텐츠 공동제작을 통해 학교기업 현장실습의 기회를 타 대학 재학생에게 부여하며 특히 영화전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를 중심으로 영화제작 현장실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참여에 한계가 있었으나 향후 학점 교류 등 참여의 비중과 역할을 심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기업 할 엔터테인먼트와 국민대 무용정공이 주도하여 진행한 프로젝트인 지역사회 공익콘텐츠 제작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전통시장 및 지역명소를 선정하여 이를 홍보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된 홍보물을 지역 공공기관 및 영세사업자에게 제공하며, 학교기업 차원에서 유튜브 등에 영상물 게시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지자체 및 지역사회전문기관과 영상콘텐츠 제작 협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학년 예비 직무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진로지원센터)

저학년 예비직무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 성과 및 개선점

(교육학과 조다영)



소감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생모니터링단으로 활동했던 조다영이라고 합니다. ‘학생모니터링단 시범 운영단’이라는 무게를 안고 첫 활동을 시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활동의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학교 공지를 둘러보던 와중에 이 활동을 발견했고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시작했으나 사전조사, 담당자와의 인터뷰, 스스로 고민하고 정리하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책임감과 열정이 생겼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전반적으로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좋았던 점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활동이 선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터뷰 질문을 작성하는 것, 인터뷰 일정을 조율하는 것, 인터뷰 내용을 오롯이 혼자 이해하고 정리해서 기록한다는 점 등이 자율성을 기를 수 있으며 자신감도 생기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의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대학교 학생의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말로 전달했던 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더욱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달 동안 한 프로그램을 조사하며 전반적인 내용을 꿰고 있게 되니 뿌듯한 마음도 드네요. 자칫 무료하게 보냈을수도 있었던 학기와 방학을 좀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소감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과들

안녕하세요, 저학년 예비직무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담당 조다영입니다. 먼저 Junior CoREP이라고도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저학년 학생 스스로 희망직무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취업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활동을 통해 명확한 직무이해와 커리어 플래너를 작성하고 팀공모전을 통해 성공적인 진로활동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르는 종합 진로활동 및 역량개발 과정입니다. 사실 주니어 코랩보다 CoREP이 먼저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코랩이란, 고학년의 직무 역량을 기르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으로, 취업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코랩에 관한 설명회가 열리는데 왜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고학년에만 있는가 하는 의문이 기업 측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사실상 1,2 학년들은 진로에 대한 관심만 높은 반면 꿈이나 비전,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취업역량을 길러주

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진로를 구체화하고 취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게 먼저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주니어코랩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앞으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지, 어떠한 직무를 맡고 싶은지 등을 설계할 로드맵을 짜나가는데 도움이 될 프로그램이 생겨났습니다. 일단 주니어코랩의 활동은 팀 활동과 개인활동으로 나뉘어 집니다.

팀 활동(기업분석홍보)은 한 팀 당 7-8명으로 구성됩니다. 희망하는 모집직군을 기준으로 한팀이 되고, 팀끼리 기업과 직무를 정하고 멘토님께서 방향성을 제시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에 직접적인 연락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디엠, 메일 등 다양하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도전을 통해 인터뷰를 잡고 자세하게 인터뷰 질문지 작성한 후 실제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현직자 입장에서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국민대학교 학생으로서 어떤 공모전, 대외 활동, 인턴쉽, 자격증 등을 준비해야할지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됩니다. 이후 보고서 및 피티를 만들고 수료식날 발표와 시상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팀과 개인에게만 무려 국민대학교 총장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개인 활동입니다. 개인활동은 사전과제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워크넷에서 성격, 가치관, 적성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학점이나 자격증, 비교과활동 등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세세하게 짜오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실질적인 피드백과 멘토의 수정을 통해 개인의 진로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는데 있어 디딤돌이 될 활동입니다.

이렇게 기업을 섭외, 분석, 인터뷰라고 하면 경영학과 학생들과 관련이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경영학과 학생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활동이 아닙니다. 인사, 재무, 회계, 생산, 마케팅, 홍보, IT, 컴퓨터, 기계, 건축, 법 등 정말 다양한 직군이 있기 때문에 학과와 관련없이 모든 학생들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과와 관련 없이도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무 위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되는 멘토는 기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 즉 20년 가까이 기업에서 현직 근무 하시다가 취업진로 겸임교수로 지내시는 분들 이십니다. 생생하고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겠지요. 다음은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현재의 운영 방식 및 개선방안입니다. 실제로 많은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인원제한이 있던 시기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기업 방문이 진행되어야하기에 이러한 경우는 최소한의 인원이 가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팀원들이 함께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만나기 어려울 경우에는 팀 당 하나의 강의실이 배정됩니다. 즉 8명이 하나의 강의실에서 팀활동을 수행하고 중앙 강의실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화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결과물을 영상으로 제작해야하기에 팀원이 모여 영상을 촬영하기 역시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진행해야하나 기업 측에서도 화상 인터뷰 외에 방문 인터뷰를 거절하는 경우 역시 비밀비재하고 대면으로 진행하며 현장감을 느끼고 소통하는 활동들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아쉬움도 컸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모일 수 없는 활동들은 다른 대책을 마련하여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언택트방식(화상 설명회, 화상상담)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지원직무의 제한을 폐지하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지원율 증가에도 한몫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교육기간 2주를 두고 이 시기에 개인진로탐색 활동이나 동영상 시청을 제공했습니다. 본 교육기간을 7주에서 6주로 단축시켜 전체 2달이라는 장기일정으로 인한 학생 참여 기피를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필수인원 대면교육+전체인원 E-campus 가상대학으로 진행하는 on/off 블렌디드 교육방식을 도입해 최대한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게끔 했습니다.

<기수별 지원률 추이>

구분	7기	6기	5기	4기	비고
지원자 수	116명	107명	113명	75명	6기 대비 모집 인원이 증가(65명>70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증가함
경쟁률	1.66:1	1.64:1	1.73:1	1.25:1	
설명회, 상담 참여	68명	54명	57명	23명	

지속적으로 참여율과 지원자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만족도 역시 4,5,6,7기 순서대로 85%,84%,94%,91%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

개선점들

이렇게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부족했던 점을 고민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합니다. 그렇기에 저학년 예비직무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되돌아보며 아쉬웠던 점을 살펴보고 개선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주니어코랩은 팀활동 중에 인터뷰가 진행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이러한 기회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은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기주도를 강조하는 것은 맞으나 한 번도 이러한 경험이 없었을 학생들에게 외부의 개입이나 지원 없이 기업의 인터뷰를 따내야한다는 것은 부담감과 막막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방목형의 느낌이 들지 않게끔 멘토님들의 적절한 개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멘토란 각 직무별로 팀이 나뉘어진 후에 그에 맞게 적절한 팀에 배치되는 지도자 같은 분들입니다. 전문성 있는 멘토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지만, 매번 새롭고 다양한 직무의 팀이 꾸려지고 그에 비해 멘토들의 직무 관련성이나 다양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세히 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와 관련한 팀이 있다면 물리학과, 이과 출신의 멘토 이런 식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하여 멘토를 배치하여 깊이 있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니어코랩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멘토들의 조언이 항상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 멘토들이 각자 내는 의견이 다르다면 그로 인해 팀이 혼란스러움을 겪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나아가기 위해선 각각의 의견을 내기보다는 멘토들끼리 먼저 의견을 나눴고 정리하여 하나로 수렴한 후 학생들에게 전달한다면 더욱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주니어코랩은 다양하고 많은 기업과 직무들을 직접 컨택하고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직무에 대해 인터뷰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발로 뛰며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성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주니어코랩 공모전이라는 공식 과제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자신들의 진로활동을 확장하고 지속해나가는 방안을 세우고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주니어코랩 활동내용이나 각자가 맡은 직무정보를 게재하는 방식, 또는 웹사이트를 제작하거나 강연회를 개최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의 결과로, 학생들이 스스로 비전을 찾고 구체적인 자신만의 대학생 커리어로드맵을 완성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 함양과 사회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적합한 관계능력(팀워크, 소통능력, 인성과 태도)을 고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로설계가 미진한 저학년을 대상으로 삶의 비전을 확립할 수 있는 저학년 대표프로그램으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향후 학생들은 이 활동들이 끝난다고 해서 결코 끝이 아니랍니다. 학기가 끝나고도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과 상담이 이어지기도 하고, 주니어 코랩을 시작으로 코랩과 동문멘토가 되어 후배 기수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 연쇄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학생들도 많답니다. 이 직무에 대해 확신이 생겨서 이쪽으로 세세하게 진로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막상 진행해보니 나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시간을 아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학을 투자할 의지와 열정이 있는 학생들, 이미 확실하게 정해놓은 진로의 직무나 기업에 대해 더 자세히 탐색하고자 하는 학생들, 혹은 궁금한 직무가 있어 경험해보고 싶은 친구들, 팀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우정도 쌓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저학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직무역량강화 교육과정(취업지원센터)

CoREP 성과 및 개선사항

(융합기계공학전공 이재원)



소감문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모니터링단 이재원입니다. 처음 모니터링단 지원 공고가 올라왔을 때 많이 고민하였으나, 국민대학교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용기를 내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CoREP 분야를 조사하면서 저도 몰랐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학교와 단절된 학생들에게 취업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어서 힘들었지만 매우 보람찬 활동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황이 호전되어 학생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개설목적

취업을 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 실제 기업이 취업준비생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궁금한 학생들에게 방학 8주 동안 전문멘토와 함께 실무중심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개설

2

교육안내

- 1) 신입사원 비즈니스 마인드
- 2) 엑셀, 파워포인트 교육
- 3) 해당 직무 기초지식 교육
- 4) 현업담당자와 Q&A,
- 5) (기업&멘토&학생) 합동 공모전

3 주요 활동

- 1) 팀별 직무공모전을 위한 프로젝트
- 2) 기업선정 및 섭외, 공모전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3) 기업과 공모전 공동수행과 성과 도출
- 4) 전문멘토와 공모전 멘토링
- 5) 과제 제출 발표

4 특징

- 1) 실제 직무에서 사용하는 지식을 교육
- 2) 담당멘토의 취업컨설팅을 통해 개인 취업전략과 스킬 코칭
- 3) 취업까지 집중관리 프로그램 진행
- 4) 직무교육 수료증 2건과 직무공모전 상장 전원수여 (최우수 팀과 개인은 총장상 별도 수여)
- 5) 플러스알파 교양 2학점(60시간) 신청가능
- 6) 현직 선배초청 직무간담회 & 취업선배 네트워크 제공

5 모집직군

- 1) 경영지원(인사/총무/교육/회계)
- 2) 마케팅/홍보/광고/MD
- 3) 영업/영업관리/유통영업관리/서비스
- 4) 해외영업/해외마케팅/무역/물류/글로벌소싱
- 5) 생산관리/생산기술/품질관리/연구개발/생산구매

6 신청방법

참가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출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해당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야하는 자신만의 이유와 특징이 주요한 선발 기준 중 하나)

직무팀명	기업	공모전 결과 내용
마케팅 1팀	(주)FYSEE	대체육 더 뉴잇 제품 -마케팅 모델 제시 및 비건 이커머스 쇼핑몰 입점 제의 및 계약 진행
마케팅 2팀	(주)모다모다	모다모다 샴푸 출시 -신제품 400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완판
영업 1팀	다슈코리아	남성청결제 -9월 1일 국민대 생활협동조합 납품예정
영업 3팀	디자인원헬스	닥터포레그 -애견미용샵 위탁판매(25개점), 정식입점(8개점) -온라인쇼핑몰 입점(펫프렌즈) 통해 오프라인 신규유통채널 구축 및 확대
생산품질 1팀	(주)제일외스텍	산업용마스크 -필터 분진제거장치 개발 및 시제품 도입 완료 -소음저감장치 개발 및 성능 확인 후 도입 예정
생산품질 2팀	동우금속	스프링클러 배관제작업체 -파이프 재활용 위한 압착기 제작 및 도입 -우레탄 압착흡수 카운터기 제작 및 도입
생산품질 3팀	HL그린파워	배터리셀 C2H2 가스 검출기 도입 검토를 위한 미팅
해외영업 1팀	닥터바이오	선쿠션 화장품 -대만, 싱가포르 수출 프로세스 확립 -현지 쇼핑몰(쇼피,라자다) 10여개 제품 입점 -오프라인 대만 및 싱가포르 오프라인 채널 입점 추진 중

항목	내용
워크북제작	학생용 워크북을 제작하여 배포함 필수 안내문과 교재 그리고 일일 활동기록지를 기재함. 공모전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좀 더 계획적인 활동과 자기성찰의 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함
사전교육 대면교육	워크샵 전 동영상 사전교육 후 대면 워크샵 진행 (프로마인드&매너교육, 취업역량교육, 워크샵 사전준비 내용 등) 기존 워크샵 기간이 길고 힘들다는 건의사항 반영
교육방법	이론전달교육은 동영상으로 활동중심교육은 화상으로 진행함 화상 또는 대면으로 진행시 공모전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건의사항 반영
대표멘토 설문조사	대표멘토 중간 비공개 설문조사 시행 학생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대표멘토와 1:1상담 또는 팀 단위 해결 기존 기수들 중 일부 학생들이 코렙 활동에 부적응하거나 개인적인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어 선제적 해결을 위해 도입
멘토링	대표 멘토 8개팀 팀별 멘토링 2회 추가 참여 상향 평준화 되는 멘토링 성과 도출을 위해 도입
피드백	최종피드백과 최종리허설은 대표멘토와 담임멘토만 참여함 많은 멘토들의 피드백이 오히려 혼돈을 주고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의사항 반영
총장님상	최우수팀상을 총장님상으로 변경. 공모전 활동 뿐 아니라, 코렙 전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9

CoREP 15기 적용할 개선사항

항목	내용
교육내용 추가	프로마인드&매너 교육내용에 문제해결능력과 갈등관리법, (팀장)리더십 내용 포함하기로 함. 팀내 갈등과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사례교육이 필요
동영상 녹화시간	동영상교육 촬영시 40분 단위로 녹화, 학생들의 수업집중도 높임.
멘토미팅 강화	멘토들이 팀별 공모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멘토링 하기 위해 매주 멘토미팅 신설. 보다 더 객관적인 공모전 평가를 위해 멘토 사전평가 미팅 신설.
팀자율미팅 시간	학생들의 개인 시간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출근제, 코어타임제, 주간 활동총량제 등 시간활용법을 기획하여 적용 예정
운영진미팅	기장, 팀장 미팅을 통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 강화



K-Hunting 프로그램(취업지원센터)

K-Hunting 프로그램 성과 및 개선점 (교육학과 김환희)



소감문



“국민대학교가 재학생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학생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었다. 사실 20학번이기에 나를 포함한 나의 대학교 동기들은 학교 내 프로그램을 여러 번 참여해본 적도 없고,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그런데 학생의 입장에서 K-Hunting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재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내가 조사하게 된 K-Hunting을 보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대학 생활을 하며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취업’일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대학교 입시와는 다르게 취업은 회사의 종류도, 직무의 다양성도 훨씬 더 다양하며 담임선생님과 같이 옆에 붙어 나의 입시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K-Hunting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취업 준비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취업 준비를 할 때 정말 든든한 조력자처럼 느껴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담당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며, 얼마나 이 프로그램에 진심이신지, 얼마나 국민대학교 재학생들을 아끼고 걱정하시는지에 대해 많이 느끼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모니터링단이라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우리 학교와 교수님들의 열정을 느끼고, 나 역시 학생모니터링단으로서 열정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주변에 해당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다. 내가 고학년이 된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용해야겠다는 생각 역시 했던 것 같다. 이외에도 활동을 하는 동안 느꼈던 바가 참 많았다. 학생모니터링단을 하지 않았다면,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볼 시간이 있었을까? 기회를 주신 대학혁신추진단, 인터뷰를 진행해주신 교수님과 선배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며 이만 글을 줄인다.

1 소개

프로그램명 : K-Hunting

목표 : 우수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발굴하며,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학생들의 기업 및 직무 취업 매칭을 통해 취업 확률을 높이는 것

참여 대상 : 국민대학교 졸업예정자·기졸업자

참여 시기 : 3월 ~ 익년 2월

참여 방법 : 3월에 공고문 대상자들에게 발신

내용 :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헤드헌팅 프로그램

·기업의 인재 요청 / 헤드헌터가 기업 서칭 → 인재 서칭 → 서류 검토 → 우수 인재 추천 → 채용 과정 지원 → 사후 관리

·채용 과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① 서류·면접 과정에서 헤드헌터 담당자와 담당 멘토의 맞춤 코칭 제공 (추천 채용뿐만 아니라 일반 채용을 준비하는 재학생에게도 제공)

② 네이버 카페에서 동문 선배들의 취업 자료 열람 가능

③ 불합격했을 시, 함께 원인 분석하며 연속적인 코칭 제공 (합격자 사후 관리도 제공)

참여 기업 : 단순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계열사·협력사, 외국계 기업 등 엄선한 기업들

참여기업명(2019-2021)

복정제형, 맨파워코리아, 글로벌링크에듀케이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AVL Korea, 법무법인 율촌, 한솔섬유, 국제엘렉트릭코리아(삼성협력사), 주성엔지니어링, 대덕전자(삼성협력사), 메가스터디교육, 위드텍(삼성협력사), 파트론(삼성협력사), 신성통상, 에드워드코리아, 휠라코리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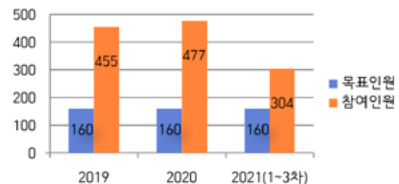
2 성과

*지금부터 나오는 2021년에 해당하는 자료는 전체실적이 아닌 1~3차 실적만을 담은 자료라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1) 참여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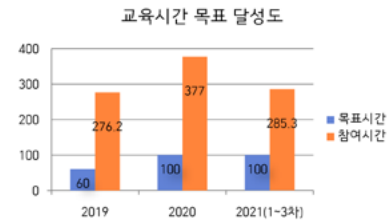
	목표인원	참여인원
2019	160	455
2020	160	477
2021	160	304

참여학생 목표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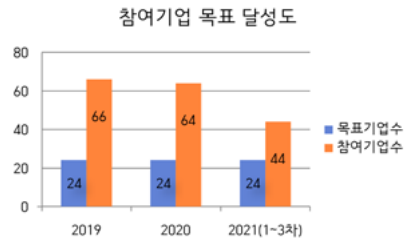
2) 교육시간

	목표시간	참여시간
2019	60	276.2
2020	100	377
2021	100	28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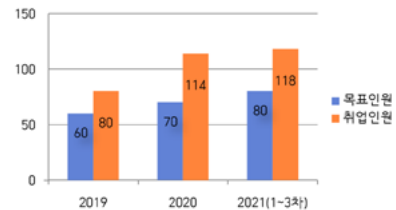
3) 참여기업

	목표기업수	참여인원수
2019	24	66
2020	24	64
2021	24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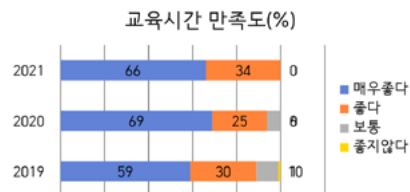
4) 취업인원

	목표인원	취업인원
2019	60	80
2020	70	114
2021	80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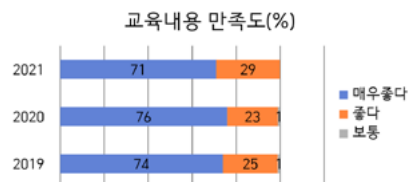


5) 만족도

① 교육시간



② 교육내용



③ 강사



- 전체적으로 목표 달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조사됨.
- 2) 교육시간, 4) 취업인원은 목표치가 높아짐에도 목표를 달성함.
- 만족도에서 각 항목별로 '좋다' 이상으로 응답한 인원의 비율은 90%가 넘어감.
- 국민대학교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와 정보, 1:1 맞춤 코칭, 사후 관리 등의 요인이 높은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3 개선점

1. 홍보

- ① 문제점 : 프로그램 대상자에 한하여 홍보가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 저학년 재학생들은 K-Hunting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② 이유 : 저학년 재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알고 있어도 바로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저학년 때부터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 취업 준비를 미리 시작하는 학생, 학년은 낮지만, 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학교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있는 학생 등등. 취업에 대한 여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저학년 학생들은 분명 있을 것임.
 - ③ 개선 방향 : 저학년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진행하면 어떨까?
- ① 문제점 : 해당 프로그램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 참여를 망설이는 학생들이 존재함.
 - ② 이유 : 단순한 중소, 중견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계열사협력사, 외국계 기업 등 알짜 기업들이며, 해당 회사에 입사하지 않아도 서류와 면접 기회를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음. 그럼에도 단지 회사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꺼려함.
 - ③ 개선 방향 : 홍보의 방향을 재학생들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두면 어떨까?

2. 다양한 기업과 직무

- ① 문제점 : K-Hunting 참여자들의 인터뷰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더 다양한 기업과 직무가 있어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음.
- ② 이유 : 지금까지 K-Hunting에 참여한 기업의 수는 약 60~70개. 다만 이공계 계열과 같이 특정 계열, 특정 직무에 대한 포지션이 더 열리는 경우가 발생함.
- ③ 개선 방향 : 현재와 같은 실적을 유지하며 프로그램의 연차가 쌓이고, 합격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프로그램 홍보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기업과 직무에 대한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3. 1:1 밀착 관리 시스템

-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었으면 하는 K-Hunting만의 장점!
- 취업 준비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무료로, 1:1로,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매력 포인트.
- 대면과 비대면이 혼용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밀착 관리를 하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KMU Entrepreneurship Track(창업지원단)

KMU Entrepreneurship Track 운영 성과 및 개선점

(소프트웨어전공 박건후)



소감문



무지한 1학년 때, “도대체 학교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라고 생각했던 저를 반성했습니다. 대학혁신추진단 모니터링단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매일 아침 창업지원단과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매일 같이 방문하다보니 많은 교육 프로그램, 공모전, 대회, 인턴 모집 등의 공고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학혁신추진단이 학생들의 경력 개발, 장학금 지원에 굉장히 힘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덕분에 교내에서 열리는 대부분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었고, 수상도 많이 하여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교내 프로그램, 공모전에 참가해보니 학생의 시각으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종합하여 뉴스레터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기 전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대

해서 조사하면서 담당자님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참가자로서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과 개선점을 전달드리며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 설렸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학교에 한번도 방문하지 못한 신입생들이 늘고 있으면서, 교내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혁신추진단의 뉴스레터로, 교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사업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무지한 1학년 때의 박건후와 같은 신입생에게 ‘학교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활동이 교우의 커리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활동에 도움을 주신 대학혁신추진단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담당 프로그램 소개

KMU Entrepreneurship Track은 Entrepreneurship, 부트캠프, 지암 이노베이터 3가지 프로그램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Entrepreneurship 분야의 창의융합프로젝트스튜디오는,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교수진이 공학, 경영, 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팀을 지도함으로써 창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업 아이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목입니다. 융합프로젝트 교육을 통해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Design Thinking 특강, 아이디어 멘토링, 서로 다른 자질을 가진 팀원과의 협업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웹 플랫폼 개발과 같은 프로젝트 등을 개발하고, 아이디어 피칭을 통해 전공과목에서는 쉽게 도전해볼 수 없었던 프로젝트의 서비스화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What is KMU Entrepreneurship Track?

KMU Entrepreneurship Track이 무엇인가요?


창업지원단의 프로그램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3가지로 분류하며 앙트러프러너십, 부트캠프, 지암 이노베이터가 있습니다.



앙트러프러너십



부트캠프



지암 이노베이터

PROGRAM

창의융합프로젝트스튜디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교수진이 공학, 경영, 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팀을 지도함으로써 창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업 아이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목입니다. 융합프로젝트 교육을 통해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Design Thinking 특강, 아이디어 멘토링, 서로 다른 자질을 가진 팀원과의 협업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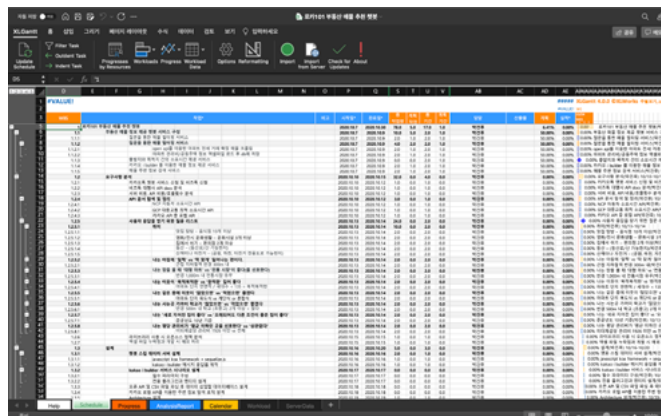
담당 프로그램(창의융합프로젝트스튜디오)을 수강한 학생들의 성과



작년(2021년)의 경우, 창의융합프로젝트스튜디오 교과목을 진행하지 않아, 작년 창의융합프로젝트스튜디오 교과목에 참여한 팀원 'Around Us'의 팀원 박건 후, 민대인, 원상연 학생의 참여 성과 및 수강 후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Gantt Chart 작성 방법 습득

Gantt Chart 작성을 통해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마감일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제 본인 역량과 계획의 불일치를 많이 경험 함으로써 공수 산정을 할 때 많은 것을 고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를 기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이 공수 시간 산정 경험이 프로젝트 진행한 경험으로 인정받아 여러 회사 인턴에 합격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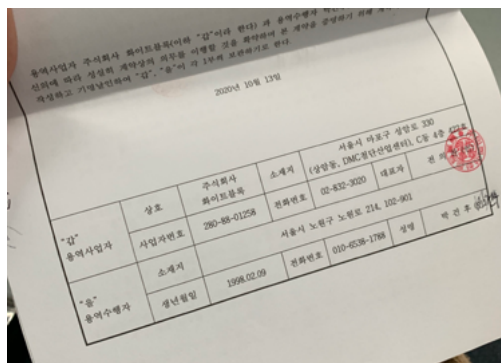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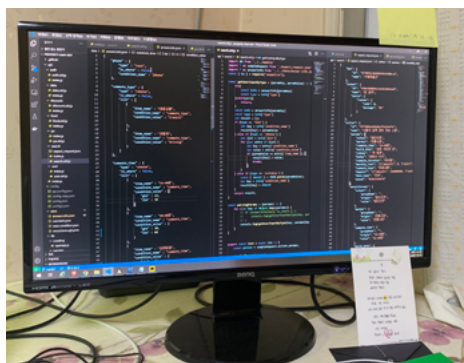
부동산 매물 추천 챗봇의 구현과 배포

부동산 매물 추천 챗봇을 카카오 챗봇 빌더를 통해 구현하고, node.js 기반 서버 API를 만들어 AWS ECS 서비스를 통해 배포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팀원 중 산림시스템학과에 재학하는 분의 UI 디자인 결과물을 피그마를 통해 함께 앱 화면을 설계해보고, 개발을 진행하여 기술 스택을 더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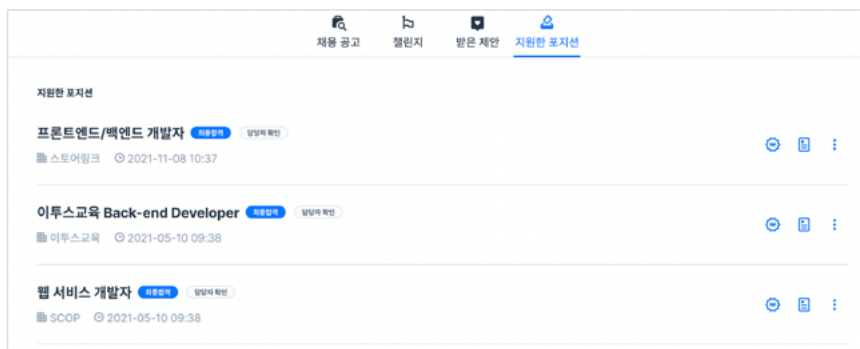
(주) 로카 101과 (주)화이트블록과의 '부동산 매물 추천 챗봇' 용역 계약

팀원 중 한 분께서 (주)화이트블록 대표님과의 대화 중 부동산 매물 추천 챗봇을 관심있는 업체가 있다고 전달 받아, 학기 중 (주)로카101과의 용역 계약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용역 계약의 추진을 통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서비스화를 위한 프로젝트 구조 설계, FlowChart 설계 등을 경험할 수 있었고, 교수님들의 조언 덕분에 완성도 있는 서비스를 구성하여 용역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경험으로 (주) 이투스교육, (주) 스토어링크 등 여러 회사 인턴 합격, 공모전 수상

창의융합프로젝트스튜디오 수강을 통해 창업자의 입장에서 아이템을 기획해보고, 실제 구현하고, 고객들에게 배포하는 경험이, 면접에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어 여러 회사를 합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의 경험을 살려, 인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공수 시간 산정, 개발 스프린트 구성 등을 쉽게할 수 있어 편했다고 합니다.



3 창의 융합 프로젝트 스튜디오를 수강한 학생들의 후기

원상연(소프트웨어학과, 17학번)

수강 초기에만 해도 우리 개발자 3명 팀으로 앱 하나 만들면 될 거 같고, 우리의 기획과 아이디어가 괜찮은 편이며 이 정도면 프로젝트 진행이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분야에 능통하신 총 네 분의 교수님들의 다각화된 시선에서 나오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점차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적 한계 내에서 어떠한 접근을 해야 프로젝트를 현실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지, 단순히 코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떠나서 사용자층의 분석, 시장 조사까지 전공인 개발 외적으로 많은 것을 배워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좋은 배움이었습니다.

민대인(소프트웨어학과, 17학번)

대학교에 들어와서 팀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같은 과 학생들하고만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자인 측면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꼈고, 그러한 점에서 항상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사람이 만나 팀을 만들어 협업을 이뤄낸다면, 보다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박건후, 원상연 학생과 창의융합프로젝트 스튜디오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창의융합프로젝트 스튜디오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성장과 발전 그리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 협업을 하는 활동이 서로의 미흡한 분야를 채워주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접근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역량이 달라졌습니다. node.js를 처음 사용하여, Koa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RESTful한 서버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페르소나 모델 설계와 다양한 협업도구를 가지고 협업하고 좋은 결과물을 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생겼습니다. 보다 많은 팀 활동과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좋은 팀 활동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4 전반적인 운영 개선점

문제점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학혁신추진단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의 참가율이 떨어져 아쉽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교우에게 물어본 결과, “그런 프로그램(알파프로젝트, TEAM STARTUP BOOTCAMP, 창의융합프로젝트스튜디오 등)이 있었으면 진작에 신청했을텐데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는지 몰라 신청하지 못했다.” 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학생과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모전, 행사,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주최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그것의 전파력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의 원인으로는, 학생들은 보통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의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계정(https://www.instagram.com/kmu_studentcouncil/)에서 학교 공지사항을 얻기 때문인데, 총학생회의 경우, 학사일정 관련 콘텐츠만을 게시하므로, 대학혁신추진단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의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개선점



학생들은 총학생회 인스타그램(1월 25일 기준, 약 7100명)을 통해 학교 공지사항을 알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학혁신추진단의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총학생회에 프로그램 홍보를 문의하여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개선점으로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모범 사례로, 한양대학교 교육혁신단에서는 인스타그램 계정(https://www.instagram.com/hanyang_inno/)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계정을 통해 대학혁신추진단이 자금, 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를 업로드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함.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민대학교 대학혁신추진단이라는 계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기획, 승인받아 운영하는 것을 개선점으로 제안합니다.

5

KMU Entrepreneurship Track 중 창의융합프로젝트스튜디오의 운영 개선점

문제점



작년의 경우, 창의융합프로젝트스튜디오 교과목을 진행하지 않아, 작년 창의융합프로젝트스튜디오 교과목에 참여한 팀인 'Around Us'의 팀원 민대인, 원상연 학생의 인터뷰를 통해 개선점을 문의하여 전달받았습니다. 학사 공지를 했음에도 창의융합프로젝트스튜디오 참가자가 많이 부족하여, 창업지원단측이 TEAM STARTUP BOOTCAMP 프로그램에 떨어진 팀을 대상으로 교과목 수강 참여를 홍보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팀이 수강 전부터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팀별로 프로젝트의 주제가 어느정도 잡힌 상태에서 진행하여, 교수자들이 주제 선정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닌 프로젝트 진행 방식에 대해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본 프로그램에 10명정도 참여하였기 때문에, 주제가 3가지 뿐이라 다양한 비즈니스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본 것이 아니라 아쉬웠다고 합니다. 만약 많은 참여자가 있었다면 다양한 전공의 학생으로 조합된 팀이 나와, 다양한 주제(기존에 있던 주제에 기반하여 개선)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쉬웠다고 합니다.

개선점



우선 참가자의 수가 적으니 참가자를 많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경력개발지원단의 주니어 CoREP 팀과 연계하여 창의융합프로젝트스튜디오 수업 수강을 장려하고, 지암 이노베이터 스튜디오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멘토링과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 기반 전공 과목에 홍보를 요청하고, 북악인성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알파프로젝트의 참여자에게 이 프로그램의 참여를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전에 본 교과목을 수강했던 인원을 인터뷰하여, 이 과목을 수강하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었는지 구체화하고 홍보 팸플렛을 만들어 ON국민,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에 배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계성을 통한 참가자 확대를 위해 TEAM STARTUPBOOT CAMP의 참가자가, 창의융합프로젝트스튜디오를 pre-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알파프로젝트(프로젝트 구체화)->창의융합프로젝트스튜디오(프로젝트의 구현 및 마케팅)->TEAM STARTUPBOOT CAMP(시제품 테스트, 전시회 개최)->지암이노베이터스튜디오(창업) 으로 이어질 수 있게 단계별 프로그램(교내 여러 기관의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혁신 영역 4



신규 특성화 분야 발굴(전자공학부)

2021 '신규특성화분야발굴' 프로그램 모니터링 보고서

(융합기계공학전공 이지희)



소감문



이번 모니터링단에서 함께하면서 국민대학교에 학생들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여러 학부의 신규특성화분야발굴에 대해 조사하면서 각 학부별로 실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진로선택 및 직무선택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저희 모니터링단의 뉴스레터로 홍보되어 더 많은 학우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정확히 알고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니 아주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의 관점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관해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작성한 보고서로 현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면 더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

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타 다른 프로그램 또한 학생들의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며 더욱 홍보되고 개선된다면 전체적으로 더 훌륭한 학교를 조성하는 것에 이바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뉴스를레터를 읽어보며 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 뉴스를레터를 다른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단에 참여하게되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 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1 신규특성화분야발굴 이란?



신규특성화발굴분야는 여러 다양한 학과에서 기존에 학과 특성화 분야와 융합하여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맞춰 학문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한 현장 체험형 교육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면, 실습위주의 프로그램이며 각 학부에서 선정한 실습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실습활동이 중요해지는 최근 취업 시장의 동향에 맞춰 학우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2 기계공학부 신규특성화분야발굴



1. 기계공학부 신규특성화분야 발굴

AI 특강



- ✔ ROS의 설치와 기본 기능 실습
- ✔ 로봇을 통한 딥러닝 실습
- ✔ 로봇의 자율주행 실습

ROS를 통한 로봇제어부터
딥러닝 자율주행 까지!

로봇 제어를 위한 ROS 학습과 딥러닝 학습을 통해
로봇이 실제로 딥러닝 후 올바른 경로로
스스로 주행 가능한지 실습합니다.


학생들의 만족도 4.5/5! 모두 참여하세요!

먼저 융합기계공학전공에서 진행하는 신규특성화 분야 발굴, 자율 이동 로봇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ROBOT에 특화된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한 이 특강은 로봇의 기본 운영체제인 ROS에 대해 학습하고 직접 설치 및 실습을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을 위해 로봇을 통해 딥러닝 기술을 실현하는 실습도 진행하게 됩니다.

기계공학부의 신규 특성화 발굴 프로그램은 로봇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1. 기계공학부 신규특성화분야 발굴



- 1 7회의 강의 동안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강의를 열심히 듣는다!
- 2 수업시간이나 자습시간에 언제든지 어플을 통해 질문한다!
- 3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진행되는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 4 2인 1조로 함께 열정적으로 탐구한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7회의 수업동안 강사님께서
최대한 기초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천천히 수업 내용을 학습하고
수업 시간뿐 아니라 개인 공부를 할 때도
질문할 수 있도록 어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진행되는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상품 또한 준비되어 있어
팀원과의 열정적인 참여를 독려합니다.

3 전자공학부 신규특성화분야발굴

2. 전자공학부 신규특성화분야 발굴



전자공학부에서는 설계능력 증진을 위해
학우여러분들에게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부에서는 재학생들을 위한
신규 특성화 분야 발굴 프로그램들이
더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전자공학부
학우님들의 설계능력을 증진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자공학부의 3가지
신규특성화 발굴 분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공별 특화 설계교육 프로그램은
심화학습이 가능한 설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소규모로 진행되어 반도체, AI 등 여러 분야에 사용
되는 기술을 실습 위주의 과정으로 학습 가능합니다.

대학원 Open Lab은 본교 대학원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중인 주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 전자공학부

신규특성화분야 발굴



교육 프로그램	
전공별 특화 설계교육 프로그램	하/동계 방학에 진행되는 여러 주제의 소규모 강의와 연구실 투자를 통한 대학원 OPEN Lab 에 참여하세요!
설계 능력 고도화 프로그램	설계설계 경험을 공유/시하는 취업시장에 따라 학생들에게 전자공학부에게 제공하는 공학설계 페스티벌, 창의 설계 경진대회 디자인 경진대회와 같은 다양한 경진대회
외국인 재학생 적응 프로그램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아두이노 설계 응용실습과 한국인 학생들과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그리고 설계 능력고도화를 위한 여러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교내에서 진행하는 공학 설계 페스티벌, 창의 설계 경진대회, 캡스톤 경진대회 등 각종 경진대회에는 수상 시 상금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공학부에는 외국인 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학우들을 위해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한 설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 학우들과의 멘토-멘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멘토인 학우에게는 장학금 또한 수여되고 있어 모든 학우 여러분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4

공연예술학부 신규특성화분야발굴



3. 공연예술학부

신규특성화분야 발굴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실습

1 참여학생들이 개인/조별로 작품(필드라마, 바이탈광고) 기획/촬영 공모

2 기획서를 협력기업의 전문 PD들에게 제출하여 실무중심형 평가 후 기획서 선정

3 협력기업의 지원과 협업을 통해 기획서를 수정하고 콘텐츠를 제작

공연예술학부의 신규특성화분야발굴은 홍보영상콘텐츠 제작 실습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참가하는 약 20명의 학우분들과 협력기업의 전문 PD들이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참가 학우분들의 기획서는 전문 PD님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실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수정되고 이 기획서를 바탕으로 실제로 콘텐츠를 촬영하고 홍보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모든 과정은 협력업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영상콘텐츠제작 실무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3. 공연예술학부 신규특성화분야 발굴

모보영상 콘텐츠 제작 연습

활동의 장점 은 무엇인가요?

1. 실제 실무진들과 함께 일하며 배우는 영상 제작
 - 기획서를 현장에서 통용되는 형식으로 함께 작성
 - 실제 촬영에 참여하며 촬영 절차에 대해 배우고 경험 가능
2. 영상제작에 흥미가 있는 타전공의 학우들도 참여 가능
 - 영화전공 학우들 이외의 타전공 학우들도 영상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다면 함께 배우면서 참여 가능
3.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 기획 및 홍보
 - 마케팅 능력의 향상

이 활동의 최대 장점은 실무진들과 함께 영상제작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서도 현장에서 사용되는 양식으로 작성해 보고 촬영에 사용되는 장비나 촬영 과정들을 직접 체험하며 경험이 강점이 되는 요즘 취업시장에 맞는 스펙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전공의 학우들도 참여할 수 있어 전공에 상관없이 영상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이용한 마케팅도 경험할 수 있어 더욱 폭넓은 실무 경험이 가능합니다.

5 신규특성화분야발굴 참여하기!

4. 프로그램 참여하기!

참여방법

- 01 온국민 메신저와 각 학부 홈페이지 확인
- 02 공지에 적힌 방법으로 참가신청 (Ex. 구글 설문지)
- 03 기타 질문사항은 각 학부사무실로 문의!

신규특성화분야 발굴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온국민 앱 메시지와 공지에 주목하세요!

공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각 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다면 각 학부사무실로 문의하세요!

요즘 취업시장의 동향에 맞춰 실습을하면서 공부도 하고 실무경험도 쌓고 싶다면 각 학부의 신규특성화분야발굴 사업에 주목하셔서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마음힐링 프로젝트(학생생활상담센터)

2021 <K-마음힐링프로젝트>및 학생생활상담센터 개선 방안 모색

(경영학부 김가영)



소감문



학교에 입학하고 가장 먼저 참여한 프로그램은 ‘신입생 마음건강 실태조사’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생활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태조사에 따른 상담을 제공해 주셔서 학생생활상담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비대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많은 재학생이 프로그램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애정이 있었던 <K-마음힐링프로젝트> 및 학생생활상담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와 동기들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과 평소 가지고 있던 마음속 고민에 대해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대외적으로도 알릴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뉴스레터 제1호가 만들어진 후, 다른 모니터링단 학우들이 완성한 내용을 보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기에 재학하는 동안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해야겠다는 다짐도 굳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당자 및 참가자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구글 폼을 활용한 조사도 해보고 인터뷰 원고도 제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에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할 때 이번 모니터링단의 경험이 많은 도움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국민대학교 학생이라는 큰 자부심 속에서, 성과사례집 및 뉴스레터 제작과 프로그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재학생으로서 더 할 나위 없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지친 감정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기에,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방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2>

1 <K-마음힐링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담당자 인터뷰



먼저 <K-마음힐링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K-마음힐링 프로젝트>에 대해 학생들에게 소개 한 번 부탁드립니다.



K-마음힐링프로젝트는 국민대 재학생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계획된 심리건강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는 매년 재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재학생들에게 학교와 구성원이 함께 한다는 소속감을 높여 고립감을 해소하고, 현재 자신의 심리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더불어 학생생활상담센터와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개인 및 집단상담 홍보를 통해 **재학생의 정신건강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심리방역 캠페인인 ‘K-마음힐링 캠페인’의 마음힐링키트는 방역물품과 간식, 스트레스 자가 척도 등에 관련한 물품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힐링키트를 준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었고, 외부에서 학생들이 오래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심신을 챙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마음힐링키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에 진행된 프로그램의 힐링키트는 자가스트레스 척도질문지, 반려식물 키우기 키트, 심신의 안정을 도와주는 아로마 향초, 달달한 간식과 학생생활상담센터 프로그램 홍보 브로셔로 구성하였습니다.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우울감과 무력감이 증가되므로 간단한 반려식물을 키우거나 향초를 피워 명상하는 시간을 갖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반복되는 일상에 작은 변화를 유도하여 마음의 위로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부분 대면수업이 진행되고 일상생활로의 전환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코로나19방역을 위한 마스크, 소독젤, 소독티슈 등 방역키트와 자가스트레스 척도 검사지, 센터 프로그램 홍보 브로셔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부분적 일상전환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심리적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심리지원을 해주는 센터프로그램 홍보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학교로 오는 국민대 재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자** 하는 학생생활상담센터의 바람입니다.



각기 다른 성향과 마음을 가진 국민대학교 학우들에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방학에 진행되었던 ‘**코로나 블루에서 자존감 지키기 특강**’처럼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앞으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지원하고자 **심리건강 관련 전문가 특강, 코로나19 심리지원 캠페인, 소규모 집단상담, 단과대학별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등 학생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서비스를 대면 및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심리전문상담자와의 1:1 심층 개인상담(대면 및 비대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대 재학생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지원하고자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K-마음힐링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과 학생들이 변화했으면 싶은 방향성이 있을까요?

A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친 심신뿐만 아니라 평소 알아차리지 못한 내면의 감정이나 사고 등 자기 자신에 관해 알아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와 마음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심신이 모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캠페인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A

매년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심리건강 지원 홍보 캠페인, 단과대학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학생 특성별 맞춤형 집단상담 등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 시행 전후에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번 11월에는 단과대학별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창의공과대학, 자동차융합대학, 조형대학)과 자살 인식제고 및 예방을 위한 전문가 특강(비교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K-마음힐링 프로젝트>를 기획한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진행한 마음건강 검사와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제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제 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셔서 감동적이었어요. 재학생들의 마음 한 켠에 있는 닳을 풀어주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감초 같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 <K-마음힐링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A

K-마음힐링 프로젝트에 지난 1년간 참여해주신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학생생활 상담센터의 문은 열려 있으니,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 <K-마음힐링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K-마음힐링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상황 속 학생들의 마음 속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에, 추가적으로 학생생활상담센터의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종합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K-마음힐링키트’, ‘집단 온라인 심리검사 워크샵’, ‘2021 상반기 마음힐링 집단 상담’, ‘코로나 블루에서 자존감 지키기 특강’,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마음돌봄노트’, ‘또래 상담자 양성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진행하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며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민*인의 대학생활 적응과 마음건강을 알아보기 위한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에 참여한 J양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J양은 ‘입학하고 1학기 중반에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서버웨이 기프트콘이 동기였으나 질문을 하나 하나 읽을 때마다 집중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태조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상담도 제공해 주셨어요. 저는 줌으로 상담 결과를 받고 선생님도 이야기도 했었는데, 저의 있는 그대로를 다 이해해 주시고 현재 저의 정서 상태에 대해 점거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라는 소감을 남겨 주셨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하며 ‘실제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상황과 정서가 검사 결과랑 다른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제 스스로는 나름대로 행복하고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에서는 불안하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추가 질문을 해주시고 내면을 바라봐주신 덕분에, 내가 그 불안함을 감추고 있었고 불안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행복한 척을 했던 것이구나 알게 되었어요.’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는지와 어떻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배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 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에 참여한 P군은 ‘저는 사람을 만나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행복을 느끼는 편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이전보다 적게 만날 수밖에 없었고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 아쉬웠어요.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다양한 영상을 제공해 준 덕분에, 코로나19 속에서 나와 우리를 다시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생활상담센터를 잘 몰랐는데, 우리 학교에서도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라는 소감을 남겨 주셨습니다. 더불어 P군은 ‘영상에서, 티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자신에게 소중한 경험이나 신념이 자살 생각을 막아 주는데, 겪고 있는 문제들이 점점 커져서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 자살을 막고 있던 가치들의 영향력이 낮아서 자살을 계획한다고 해요. 불안하고 힘들어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줄 수 있게 노력하는 ‘나’와 ‘우리’가 되어야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 주변에 진짜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돌이켜 보거나, 내가 그러지는 않는지 돌이켜 보는 게기가 되었어요.’라며 기억에 남는 내용과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3 <K-마음힐링 프로젝트>의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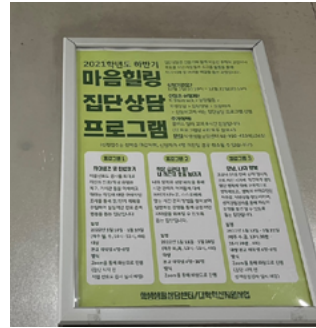
학생생활상담센터의 프로그램과 <K-마음힐링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개별 만족도는 높았으나, 참여율은 생각보다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음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였고,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만족에 대한 인터뷰 시, 홍보가 미흡하다는 학생들의 지적을 받은 적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는 어떠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자, 학생생활상담센터와 인스타그램에 방문해보았습니다.

학교에 방문해 보았을 때, 북악관과 본부관 1층에 <그림1>처럼 마음힐링노트 배부에 대해 알리는 표지가 있었습니다. 본부관과 북악관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한 노출이 되었기에 많은 학생들이 이를 보고 마음힐링노트를 받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림2>처럼 본부관 엘리베이터 옆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마음힐링집단상담>에 대한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학교에 방문한 학생들에 한해 볼 수 있는 정보와 설명입니다.

<그림 1>



<그림 2>



이를 위해 학생생활상담센터 SNS나 온국민 알림을 통해 비대면 상황에서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홍보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학생생활상담센터 SNS(인스타그램 아이디 kmsangdam)는 학생들을 위한 힐링 글귀를 올리거나 프로그램 운영 시마다 관련 홍보글을 올려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도(좋아요 수)는 낮은 편입니다. 마음힐링집단상담프로그램과 생명존중특강 등은 학생들에게 플러스알파점수를 부여하여 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학생들은 플러스알파점수보다는 서버웨이 및 배스킨라빈스 교환권 같은 기프트콘 및 보상에 대해 반응이 더 높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생활상담센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코로나19 속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 유도 및 보상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온국민 K톡을 통해 매 프로그램 운영 시마다 알리고 보상에 대해 명시하면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운영 목표였던 고립감 해소와 정신건강 상태 파악 등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신입생 학생들의 정신건강 파악을 위해서, 이전에 시행한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를 그대로 실시하여 위기에 처하거나 위험 요소에 있는 학생들에게 상담 기회를 반강제적으로 제공하여, 본인들의 현재 상태를 알게 하고 국민대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해당 학생의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K-마음힐링프로젝트>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활성화되어서 모든 학생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모두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KOOKMIN UNIVERSITY